

검 토 보 고 서

I. 예산안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하여 2019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24억 5천3백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756억 9천2백만원, 보조금은 132억 1천7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억 3천4백만원임.

<2020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안)	증감	증감률(%)
계	115,288	92,453	△22,835	△19.8%
일반회계	115,288	89,243	△26,045	△22.6%
세 외 수 입	68,489	75,692	7,203	10.5%
국 고 보 조 금 등	46,707	13,217	△33,490	△71.7%
보 전 수 입 등	93	334	242	259.1%
특별회계	-	3,210	3,210	순증

(1) 세외수입 - 892억 4천3백만원

- 공유재산임대료	241억 3천2백만원
- 입장료 수입	90억 5천3백만원
- 기타 사용료	286억 7천9백만원
- 주차요금수입	61억 7천2백만원
- 기타사업수입	2천2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4억 5천4백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3천3백만원
- 변상금	5백만원
- 시·도비반환금 수입	5억 7천2백만원
- 그외수입	60억 5천5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3억 1천만원

(2) 보조금 - 132억 1천6백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억원
- 기금	106억 1천6백만원

(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억 3천4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천4백만원
--------------	-----------

나. 세출예산

○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49억 2천4백만원임.

<2020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안)	증 감	증감률(%)
총 계	276,751	224,924	△51,827	△18.7%
일반회계	276,351	218,358	△57,993	△21.0%
특별회계	400	6,566	6,166	1541.5%

(1) 각 과별 증감내역

<관광체육국 과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본예산	2020(안)	증감	증감률(%)
총 계	276,751	224,924	△51,827	△18.7%
정 책 사 업 비	267,186	215,419	△51,768	△19.4%
관 광 정 책 과	45,019	63,864	18,845	41.9%
관 광 산 업 과	19,375	11,575	△7,800	△40.3%
체 육 정 책 과	82,484	87,187	4,703	5.7%
체 육 진 흥 과	36,020	30,683	△5,337	△14.8%
전 국 체 전 기 획 과	49,901	6,857	△43,044	△86.3%
체 육 시 설 관 리 사 업 소	34,387	15,253	△19,133	△55.6%
행 정 운 영 경 비	877	886	10	1.1%
재 무 활 동	8,687	8,619	△69	△0.8%

(2) 주요 신규사업

○ 관광정책과

-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대상 관광활동지원 3억원
-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 관광인 주간 운영 1억원
- 관광·마이스 관련 국제기구 협력사업 0.6억원

○ 관광산업과

- 서울 아·중동 관광활성화 5억원
- 서울관광 M.V.P.테마코스 운영 2.5억원
- 장안편사놀이 정기공연 운영 1억원
-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운영 2억원
- 서울관광서비스 안내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1억원

○ 체육정책과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3억원
-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조성 2억원
- 궁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 1억원
- 2020년 제25차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총회 개최 12.5억원

○ 체육진흥과

- 생활체육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 2.8억원

○ 전국체전기획과

-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시설 개보수 8억원
-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임시시설 설치 2억원
-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소방·구급·안전지원 1.5억원
- 전국소년체전 운영 지원 8.1억원
-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21.2억원
- 전국장애인학생체전 개최식 운영 지원 3.6억원
-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2.5억원
-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학생체전 홍보 및 문화행사 5.5억원
-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안내시설 설치 및 안내소 운영 1.5억원
-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학생체전 환영 및 응원 2.5억원
-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운영지원 1.1억원
- 전국장애인학생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10.7억원

(3) 주요 증액사업(2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액사업)

<20%이상 증액 또는 1억원 이상 증액 사업목록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2019 본예산	2020(안)	증감	증감률(%)
1	관광정책과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36,053	53,812	17,759	49.3%
2	관광정책과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4,260	4,750	490	11.5 %
3	관광정책과	MICE 종합지원센터	100	200	100	100.0%
4	관광정책과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600	1,100	500	83.3%
5	관광산업과	해외 도시/기업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확산	150	350	200	133.3%
6	관광산업과	서울 프리미엄 관광 육성	100	150	50	50.0%
7	관광산업과	수도권 관광진흥 협력	50	284	234	467.3%
8	관광산업과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382	469	87	22.8%
9	체육정책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13,699	14,323	624	4.6%
10	체육정책과	고척스카이돔 운영	8,928	9,343	416	4.7%
11	체육정책과	장충체육관 운영	2,155	2,298	144	6.7%
12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0,569	11,817	1,248	11.8%
13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4,162	14,794	632	4.5%
14	체육정책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지원	3,340	4,080	740	22.1%
15	체육정책과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	160	4,005	3,845	2403.1%
16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9,251	10,206	955	10.3%
17	체육진흥과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운영	540	590	50	9.3%
18	체육진흥과	민간협력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300	400	100	33.3%
1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관리 물품구입	297	415	118	39.6%
2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6,850	7,319	469	6.8%
2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1,052	1,220	168	16.0%
2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3,729	4,200	471	12.6%

(4) 주요 감액사업(2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20%이상 감액 또는 1억원 이상 감액 사업목록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2019 본예산	2020(안)	증감	증감률(%)
1	관광정책과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901	1,038	△137	△13.2
2	관광산업과	서울 관광산업 R&D	200	150	△50	△25.0%
3	관광산업과	서울이야기 발굴 및 확산	911	711	△200	△22.0%
4	관광산업과	서울 도보 관광 코스 운영	698	520	△178	△25.5%
5	관광산업과	한류관광 활성화	1,180	520	△660	△55.9%
6	관광산업과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438	338	△100	△22.8%
7	관광산업과	서울시 대표 관광 문화기념품 개발·육성	321	238	△83	△25.8%
8	체육정책과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3,047	1,868	△1,179	△38.7%
9	체육진흥과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2,711	2,446	△265	△9.7%
10	체육진흥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1,000	500	△500	△50.0%
11	체육진흥과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380	200	△180	△47.4%
12	체육진흥과	스포츠교실 운영	1,570	1,470	△100	△6.4%
13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1,755	650	△1,105	△63.0%
14	체육진흥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5,000	3,000	△2,000	△40.0%
15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285	12	△273	△95.8%
16	체육진흥과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지원	3,806	400	△3,406	△89.5%
1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3,010	1,730	△1,280	△42.5%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 2020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756억 9천2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국고보조금 132억 1천6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3천4백만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924억 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본예산	2020(안)	증감	증감률(%)
계	115,288	92,453	△22,835	△19.8%
일반회계	115,288	89,243	△26,045	△22.6%
세 외 수 입	68,489	75,692	7,203	10.5%
공 유 재 산 임 대 료	24,374	24,132	△242	△1.0%
입 장 료 수 입	6,461	9,054	2,593	40.1%
기 타 사 용 료	23,515	28,680	5,165	22.0%
주 차 요 금 수 입	6,184	6,172	△12	△0.2%
기 타 사 업 수 입	9	22	13	143.6%
기 타 이 자 수 입	155	454	299	192.9%
자 치 단 체 간 부 담 금	0	234	234	-
변 상 금	7	5	△2	△25.1%
시 도 비 반 환 금 수 입	736	572	△164	△22.2%
그 외 수 입	6,756	6,056	△701	△10.4%
지 난 연 도 수 입	291	310	19	6.5%
보 조 금	46,707	13,216	△33,490	△71.7%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699	2,600	△5,099	△66.2%
기 금	39,008	10,617	△28,391	△72.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	334	242	259.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3	334	242	259.1%
특별회계	-	3,210	3,210	-
보 조 금	-	3,210	3,210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3,210	3,210	-

○ 세외수입은 72억 3백만원(10.5%) 증가한 756억 9천2백만원임.

<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내 용	금 액	증감	증감률(%)
계		75,692	7,203	10.5%
공유재산임대료	◦ 서울시 체육회관,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 돐구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24,132	△242	△1.0%
입 장 료 수 입	◦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 돐구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9,054	2,593	40.1%
기 타 사 용 료	◦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 돐구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구의·신월야구공원 방송시설, 조명시설, 광고시설	28,680	5,165	22.0%
주 차 요 금 수 입	◦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장충체육관 주차장, 서남권 돐구장 주차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주차장	6,172	△12	△0.2%
기 타 사 업 수 입	◦ 관광정보센터 M패스 판매수수료	22	13	143.6%
기 타 이 자 수 입	◦ 잠실목동운동장 임대료 분납금,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발생분	454	299	192.9%
자체단체간분담금	◦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5개 시도가 윤번제로 사업 주관하며 '20년 서울시가 간사시도임	234	234	-
변 상 금	◦ 잠실·목동운동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5	△2	△25.1%
시·도비반환금수입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72	△164	△22.2%
그 외 수 입	◦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 잠실·목동운동장 등 공공요금 징수 외	6,056	△701	△10.4%
지 난 연 도 수 입	◦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미수납액	310	19	6.5%

△ 공유재산 임대료는 월드컵경기장 내 영화관, 사우나, 매점 등 시설의 임대료의 감정평가 반영으로 약 3% 상향조정하였고, 서울시 체육회관의 임대료가 '19년 5월 공시지가가 공표되어 '18년 기준으로 부과되었던 임대

료와의 차액을 산출하여 부과할 계획임.

△ **입장료 수입**은 25억 9천3백만원(40.1%) 증가된 90억 5천4백만원이 편성됨.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수입과 예상 경기·행사 수를 반영하여 추산한 것임.

<최근 3년간 입장료 수입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안)	증감	증감률(%)
입장료 수입	10,857	6,461	9,054	2,593	40.1%
월드컵경기장 관람·입장료	545	877	1,022	144	16.4%
장충체육관 관람·입장료	565	417	474	57	13.8%
고척스카이돔 관람·입장료	3,832	3,233	3,177	△56	△1.7%
잠실종합운동장 입장료 수입	281	174	442	268	154.1%
잠실종합운동장 관람권 수입	5,580	1,710	3,870	2,160	126.3%
목동운동장 입장권 수입	27	26	40	13	50.0%
목동운동장 관람권 수입	28	24	30	6	25.5%

- 월드컵경기장 입장료는 16.4% 증액된 10억 2천2백만원이 편성됨. '18년도 이후 잔디 생육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지역주민의 과도한 민원 등으로 문화·일반행사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고척스카이돔 입장료는 A매치 미유치 및 주요행사 이탈로 5천6백만원 감소된 31억 7천7백만원 편성됨.

-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입장료와 관람권 수입은 '19년도는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와 리모델링으로 대관이 중단되었다가 '20년부터 다시 입장권 수입이 증가될 것을 전망한 것임. 다만 '20년도 전국소년체전 개최로 예년수준으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음.

△ 기타사용료는 체육시설의 방송시설, 조명시설, 광고시설 등 부대시

설 사용료로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 종료로 대관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19년도 결산전망액 대비 200% 증액 편성함. 잠실야구장 광고사용료는 3년('17년~19년)간 동일 수준으로 110억 9백만원이 징수되고 있으며 기타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운동장 활성화 프로그램의 징수노력 및 이용인원 증가 예상분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약 3% 인상하여 편성됨.

△ 기타사업수입은 서울시관광정보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에 따라 M pass 판매수수료, 명동관광정보센터 기념품 판매수수료, 명동관광정보센터 편의시설 이용수수료로 143.6% 증액된 2천2백만원이 편성됨.

△ 기타이자수입은 보조금 이자수익, 임대료분납 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억 9천9백만원이 증가한 4억5천4백만원이 편성됨.

△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1)를 근거로 2013년 10월부터 잠실야구장 노점상에 부과된 것으로 5백만원이 편성됨.

1982년 야구장 개장 이래 계속 존재한 종합운동장역 5·6번 출구 노점상은 송파구에서 관리해오다가 노점특화거리 조성 후 노점 부지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체육시설 부지임을 확인하여 2012년 3월에 재산관리 주체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권이 이관되었음.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생계형 노점상은 17명으로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로 생계보호 차원에서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신규진입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것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기 위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가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잠실야구장 주변 노점상>

위 치	인 원	취급품목	운영시간	비 고
종합운동장역 56번 출구	강상금 외 18명	김밥, 치킨, 음료, 오징어 등	프로경기 시작 전 2시간~ 종료시까지	통일된 규격의 판매대 설치 운영 중

2013년부터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 노점상 수가 매년 감소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예산과 요구에 의해 '18년부터 편성한 것으로 공시지가(m^2)×사용면적×요율(5%)×(사용일수/365일)×120%로 사용료를 산정함.

'19년 노점상 영업 개소수가 자진 감소하였고 금년 무단점유 월 평균 일수와 '19년 기 징수액 및 향후 야구경기 일정(10월)을 고려하여 추산할 때 전년도 대비 2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감액 편성함.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자치구 보조사업 중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부서별 최근 3년간 평균 반환률을 적용함.

△ 지난연도수입에서 관광산업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천8백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2009-2010년 중국 공무원 팸투어 사업 소송 손해배상금 6천9백만원과 소송비용 8백만원 및 관광사진전 소송 2천1백만원이 포함된 것임.

그 밖에 체육정책과의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돔구장 임대료 및 체육시설사용료 미납액'과 '지난연도 자치구 보조사업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미반납액'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잠실·목동운동장 임대시설 미수납액' 등이 편성됨.

<2018년도 회계결산 기준 시설별 체납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사용료	변상금	기타 (공공요금 등)	비고	
계	4,474	740	3,625	109		
잠실	소계	4,458	724	3,625	109	
	부설주차장	3,416	398	2,961	57	남산골프클럽
	제1수영장 및 실내골프장	231	98	112	21	
	동대문운동장	679	136	528	15	희영스포츠외1명
	기타 (주경기장 사무실 등)	132	92	24	16	한가람티에스 외 19명

시설별 체납액을 보면 2009년부터 발생한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및 실내골프장의 임대료와 2010년부터 발생한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미수납액, 2012년부터 발생한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 등 고질적인 체납액이 대부분임.

폐업, 개인회생, 파산면책, 소재지불명, 사망 등 채권 회수가 불투명하여 매년 결산승인안 심의시 꾸준히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징수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과 도봉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지원을 위해 총 32억 1천만원이 순증되어 편성됨.

<관광체육국 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본예산	2020(안)	증감	증감률(%)
계	-	3,210	3,210	순증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	1,575	1,575	순증
도봉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지원	-	1,635	1,635	순증

(2) 세출예산안

- 2020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767억 5천1백만원 대비 18.7%인 518억 2천7백만원이 감액된 2,249억 2천4백만원이 편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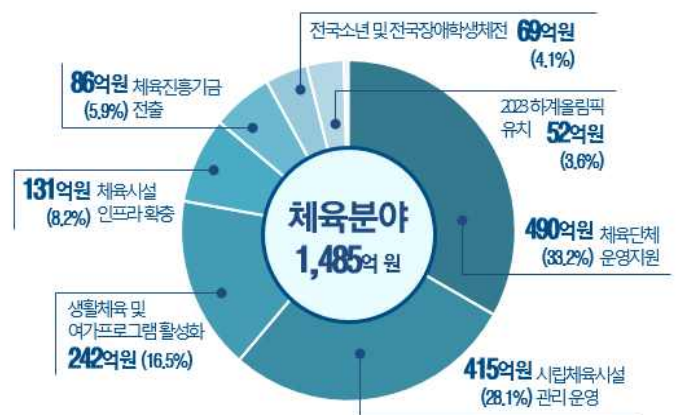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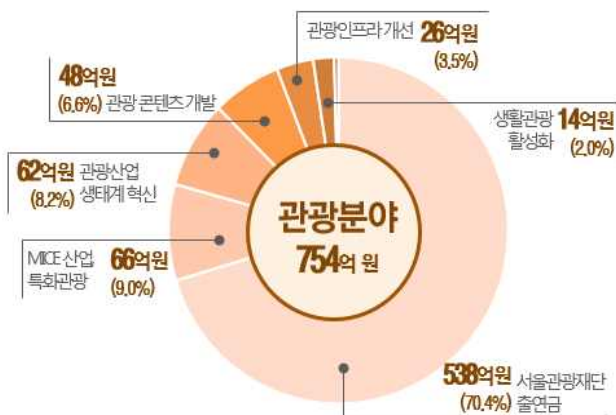
일반회계는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사업 종료에 따라 체전 준비·운영(499억원), 시설 개·보수(175억원), 경기력 향상 사업(33억원) 등 총 707억이 감액되었고, 생활체육시설 건립 완료에 따라 시설비 예산 76억원이 감액된 반면,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이 177억원 증가하고, 2020 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 사업비 69억원,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 4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됨.

<분야별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2020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총 계	276,751	224,924	△51,827	△18.7%
사업비	267,186	215,419	△51,768	△19.4%
관광분야	64,394	75,439	17.2%	
체육분야	202,792	139,980	△62,812	△31.0%
행정운영경비	877	886	10	1.1%
재무활동비(기금)	8,687	8,619	△69	△0.8%



○ 각 과별 편성된 사업예산안은

- 관광정책과 638억 6천4백만원
- 관광산업과 115억 7천5백만원
- 체육정책과 871억 8천7백만원
- 체육진흥과 306억 8천3백만원
- 전국체전기획과 68억 5천7백만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52억 5천3백만원임.

<관광체육국 과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본예산	2020(안)	증감	증감률(%)
총 계	276,751	224,924	△51,827	△18.7%
정 책 사 업 비	267,186	215,419	△51,768	△19.4%
관 광 정 책 과	45,019	63,864	18,845	41.9%
관 광 산 업 과	19,375	11,575	△7,800	△40.3%
체 육 정 책 과	82,484	87,187	4,703	5.7%
체 육 진 흥 과	36,020	30,683	△5,337	△14.8%
전 국 체 전 기 획 과	49,901	6,857	△43,044	△86.3%
체 육 시 설 관 리 사 업 소	34,387	15,253	△19,133	△55.6%
행 정 운 영 경 비	877	886	10	1.1%
재 무 활 동	8,687	8,619	△69	△0.8%

- 사업비는 총 2,154억 1천9백만원으로 재무활동비 86억 1천9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8억 8천6백만원임.

주요사업으로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MICE산업 육성 지원” 및 “시민 여기관광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아중동 관광 활성화’,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MICE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운영’ 등에 총 638억 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관광 전략 다변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및 특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서울도보관광 코스 운영’, ‘해외 도시·기업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서울관광 M.V.P. 테마코스 운영’,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115억 7천5백만원이 편성됨.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시립체육시설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 등에 1,024억 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민리그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지원’ 등에 306억 8천3백만원 편성함.

마지막으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 개·보수’, ‘체전 경기부 운영’ 등에 68억 5천7백만원 편성함.

나. 관광분야 주요사업별 검토

□ 서울 아중동 관광 활성화 (신규, 사업별 설명서 34쪽)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중동 지역 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중동 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 할랄 인증 헬프데스크 운영(할랄인증전문자문단 구성, 인증 지원 등), 아중동 관광 인프라 조성(편의시설 조성, 메뉴판 제작 등), 관광현장 종사자 및 관광정책 입안자(시·자치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신규로 5억원을 편성함.

아·중동 대상 관광 사업은 '17년 무슬림종교인들을 위한 기도실 설치에 대한 극심한 시민 반대로 운영하지 못해오다가 '18년 '개별관광객 편의시설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추진되었고, '19년 재단에서 주요 관광지의 기도실 및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무슬림 친화 식당 가이드북을 배포하였으며 할랄 관광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정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동 신규사업 5억원 외에도 재단 내 '아시아·중동지역 특화관광 사업'으로 4억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같은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실제 사업 운영은 서울시관광협회가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바,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시관광협회 간 역할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중국·일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관광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할랄'에 대한 일반시민의 반감이 높은 만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MICE 유치 및 개최지원(사업별 설명서 53쪽)

-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국가별(주요 도시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MICE²⁾(마이스) 산업의 유치와 개최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1%인 4억 9천만원 증액된 47억 5천만원이 편성됨.

‘MICE 분야별 지원금’이 2억 2천만원 증액되고 국제학회·협회 유치 지원을 위해 1억원, 홍보대사 위촉·운영 1억원, MICE 공동 유치단 운영 5천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어 증액됨.

‘MICE 분야별 지원금’은 국제회의(최대 2억원),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최대 2억원), 전시회(해외바이어 유치지원)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행사를 집중지원(최대 5천만원)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MICE 유치증대에 힘쓰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과거 지역 간 MICE 외래객의 유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교류 차원에서 방문하는 비(非)인센티브단체들도 지원을 당연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과잉 지원이 오히려 지역 경제의 수익 창출 기회를 박탈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관광공사, 지역 컨벤션뷰로 등 산업 주체 간 ‘공정경쟁 협약’ 체결을 통해 개선되고 있음.

한편 서울관광재단의 모체인 서울관광마케팅(주)는 서울시 관광·마이스 전담기구로 설립 이후 10여 년간 위탁·대행방식으로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을 해왔으며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MICE 유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원금 교부 사업은 효율적인 MICE 유치 및 개최 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해 서울 관광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됨.

2)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서, 좁은의미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산업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대형 행사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뜻함.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은 시장이 지원하는 사항이고 서울관광진흥조례상 재단은 관광사업을 위탁·대행하는 전담조직에 불과하므로 MICE 지원금 관련 업무는 시가 직접 주관하되 현행처럼 위탁·대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또 다른 의견으로 조례 상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시장이 지원주체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시장이 또는 시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 있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금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어 동 사업을 재단 고유사업으로 수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임.

한편 실질적으로 지원금 교부는 대행사업으로 서울관광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과목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타 지자체(대구, 제주, 경주, 광주, 경남 등)에서도 서울시 조례와 유사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산하 컨벤션뷰로에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모두 고유사업화하여 추진 중인 바,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업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 제반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서울 마이스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단발성 지원금 교부를 넘어 지금이라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실있는 마이스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별 설명서 58쪽)

- 서울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률·노무·인사 관련 컨설팅 및 해외 마케팅 등의 종합지원을 수행하는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서울관광재단 내 설치하여 '19년도 시범운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원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함.

서울 MICE 얼라이언스 지원에서 서울소재 중소기업 MICE 기업체로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고급인력 유입 및 이탈방지를 할 계획이었으나

'19년 6월 말경 센터를 개소하고 9월말 기준으로 인사노무 11건, 회계세무 8건, 경영법무 8건으로 총 27건의 상담실적이 전부임.

사업을 대행할 재단은 법률 및 노무자원 지원,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법률적 서비스 지원 사업을 관광전담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예산안 산출근거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	○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자문비 666,667원*10개월*6명 = 40,000	○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자문비 = 80,000
	○ 중소 MICE기업체 교육비 10,000,000원*2회 = 20,000	○ 중소 MICE기업체 교육비 10,000,000원*4회 = 40,000
	○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 20,000	○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 40,000
	- 각종 회의비 및 홍보물 제작배포비 10,000,000원*1회 = 10,000	- 각종 회의비 및 홍보물 제작비 30,000,000원*1회 = 30,000
	- 기타 센터 운영비 10,000,000원*1회 = 10,000	- 기타 센터 운영비 10,000,000원*1회 = 10,000
○ MICT IT 역량강화(홈페이지, SNS, 앱개발비 등) 20,000,000원*1회 = 20,000	○ MICE IT 역량강화(홈페이지, SNS, 앱개발비 등) 4,000,000원*10개소 = 40,000	

□ **관광마이스 관련 국제기구 협력사업(신규, 사업별 설명서 62쪽)**

- 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UN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협력을 고도화하고 도시 간 협력을 촉진하여 UNWTO의 협력회원 가입을 추진하고자 신규로 6천만원을 편성함.

서울시는 '10년 서울시장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UNWTO 본부에 방문하여 사무총장과 면담하였고, '16년부터 '18년까지 공정관광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나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공정관광 국제포럼 개최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최기간	2016.9.20(화) ~ 9.21(수)	2017.9.7(목) ~ 9.8(금)	2018.9.18.(화)
개최장소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신라호텔
참석규모	약 300명	약 500명	약 500명
포럼주제	대도시와 공정관광, 대도시와 마을여행	도시관광,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모두가 행복한 관광, 미래 공정관광

'19년 3월 UNWTO 사무총장과 관광체육국장과의 면담에서 '서울시가 도시정부로서 협력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하나, 국내 정회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입되어있고 이미 협력회원으로 서울관광재단이 가입되어 있어 서울시 관광분야 전담기구인 재단과 별개로 서울시가 가입해야 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한국가입현황

- 정 회 원 : 문화체육관광부
- 협력회원 : 울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경기·부산·제주 관광공사 등

한편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협력”(사업별 설명서 100쪽)은 수도권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가 관광진흥협의회를 체결('99.1.)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년은 서울시가 사업주관

간사로 2억 3천3백만원(467%) 증액된 2억 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시가 사업주관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홍보 마케팅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졌다는 논리로 재단이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와 재단간 역할 분담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사업별 설명서 65쪽)

- 서울시 거주 저소득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실질적 휴가 기회를 제공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관광취약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내 관광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4만여개 이상의 우수한 관광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년도 6억원 대비 83%인 5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이 편성됨.

'19년 정부에서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어 휴가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고자 편성되었음 .

대상자가 가상계좌에 15만원을 적립하면 서울시가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회(1차 '19년 5월, 2차 '19년 6월)에 걸쳐 신청자를 모집하고 2,000명을 선정하여 운영함.

'20년 예산에는 홍보비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나 비정규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범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시정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시민소통기획관 등의 시정홍보사업 예산을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홍보예산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휴가지원금 사업에서 관광은 부차적인 효과일 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확대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예산안 산출근거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	○ 비정규직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등 250,000x2,000명 = 500,000	○ 비정규직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등 250,000원x3,800명 = 950,000
	○ 관리운영비 등 100,000,000 = 100,000	○ 관리운영비 등 100,000,000원 = 100,000
		○ 홍보비 50,000,000 = 50,000

□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신규, 사업별 설명서 69쪽)

- 관광활동에 소외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을 지원하고자 3억원이 신규 편성됨.

동 사업은 장애인, 저소득층 당일여행 지원, 숙박여행 지원, 특별여행 프로그램 지원, 여행지원 사업 홍보,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함.

'18~'19년도에 시민참여 사업으로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지원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됨.

현재 재단에서 무장애관광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수행하며 시티투어버스, 소형승합차 운행을 통해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 등은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됨.

한편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8년도 말레이시아, 베트남(40명, 2회), '19년도 태국(16명, 1회), 베트남(40명, 2회)으로 국외여행을 지원하였으나 비예산 사업이라 할지라도 외래관광객 유치와 서울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됨.

□ 해외 도시·기업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확산(사업별 설명서 79쪽)

- 해외 주요 관광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관광 콘텐츠 노출 기회를 확대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3억 5천만원이 편성됨.

'19년도 '민간협의체 등 회의 운영' 사업이 없어지고 신규로 '해외 지역별 도시 및 기업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확산'(2억원)과 '관광 상품 연계 테마 콘텐츠 개발 및 확산'(1억5천만원)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안 산출근거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민간협의체 등 회의 운영 10,000,000원 = 10,000	○ 해외 지역별 도시 및 기업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확산 = 200,000
	○ 관광상품 연계 테마 콘텐츠 개발 및 확산 140,000,000원 = 140,000	- 유럽 등 잠재시장 발굴을 위한 해외도시 및 민간협력 콘텐츠 확산 (영국 런던 등 구미주 시장) = 150,000 - 수학여행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확산 (중국 베이징시, 후난성, 헤이룽장성 등) = 50,000 ○ 관광상품 연계 테마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150,000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없으며 관광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팸 투어 형식으로 일부 인원에게 대해 초청비를 지급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어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사업별 설명서 105쪽)에서 해외 핵심여행사와 공동으로 상품개발 및 홍보를 진행하고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동 사업은 재단의 “서울 글로벌 마케팅”사업 내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과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내 콘텐츠 개발 및 팸투어 운영 등과 유사하므로 사업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1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당초 ‘해외(자매·우호)도시 연계 글로벌 축제 지원’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왔으나 시민소통기획관 내 ‘해외도시 현지 서울브랜드 프로모션’(8억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최종 반영되지 않음.

□ 서울 프리미엄 관광 육성(사업별 설명서 82쪽)

- 늘어나는 고소비형 해외 관광객을 서울로 유치하여 서울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년대비 5천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이 편성됨.

프리미엄 관광 전문 여행사, 호텔 전문가이드 등 협업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한류, 웰니스, 미식, 이색체험 등 관광 콘텐츠의 프리미엄 관광을 상품화하며 홍보마케팅을 하는 사업임.

<예산안 산출근거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민관 네트워크 구축 50,000,000원 = 50,000	○ 서울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얼라이언스 구축 = 100,000
	○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지원 50,000,000원 = 50,000	- 서울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발굴 10개* 3,000,000원 = 30,000
		- 서울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발굴 디자인 및 사진 촬영 등 10개*5,000,000원 = 50,000
		- 서울프리미엄 관광 얼라이언스 운영 (간담회 및 럭셔리 트래블마트 참가) 4회*5,000,000원 = 20,000
	○ 서울 프리미엄 관광 인지도 강화 마케팅 50,000,000원 = 50,000	

한국관광공사(KTO)도 이미 럭셔리트래블마트를 개최하고, ILTM (국제 럭셔리 관광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관광상품은 이미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 지원보다 해외에 서울의 프리미엄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 시급함.

서울시와 재단 내 홍보마케팅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꾸준한 해외 홍보 마케팅과 해외 박람회 참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별 설명서 86쪽)

-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관광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서울 관광 산업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자 공개 경연대회를 통해 지원 대상 프로젝트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 4천8백만원이 편성됨.

한국관광공사(KTO)의 관광벤처공모 및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이러한 스타트업 창업지원은 기업 설립 단계부터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지원과 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관리,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 업계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가 중요함.

현재 재단이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개발 등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투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금액 지원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19년 서울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선정 및 사업지원을 통해 증강 현실 게임, MICE지원 플랫폼, 관광약자 특화 서비스, 모바일 여권 기반 텍스리펀드 플랫폼, 짐 보관 서비스 등이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사업들이 시장에 반영되어 실제로 서울시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가 서울시의 역할이라 판단됨.

□ 서울 관광산업 R&D 지원 (사업별 설명서 92쪽)

- 영세한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관광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및 자생력을 키워주고 관광사업체, 대학, 연구기관(산·학·연)간 협력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억 5천만원이 편성됨.

<예산안 산출근거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관광 사업체 연구개발 지원 등 150,000,000 = 150,000천원
		증감사유
		○ 컨설팅 비용 일부 감액 ※통계목 변경(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사무관리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관광 사업체 연구개발 지원 등 200,000,000 = 200,000천원
		증감사유
		※통계목 변경(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사무관리비)

컨설팅 비용을 일부 감액하고 서울시가 직접수행 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함. '1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수탁을 맡게 되는 재단에도 R&D팀이 존재하고 연구개발 지원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음.

직접수행을 통해 관광사업체 대상 사전조사, 전문 컨설팅 등 사업 추진 시 발견되는 관광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환경변화를 적시에 발견하여 정책·제도적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자 관광체육국 직접 수행사업으로 변경하는 바, 서울시와 재단 간 효율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중복·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서울 국제관광산업박람회 개최(사업별 설명서 114쪽)

- '19년도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개최” 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하고 전년도 대비 7천만원 증액된 9억 5천만원이 편성됨.

'15년도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이후 급감한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대행사를 통해 행사운영비로만 집행되고 있어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실을 갖춰주길 여러 차례 지적함.

서울국제트래블마트의 경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투입지표(상담 건수, 부스설치, 설명회 개최 횟수 등)로 관리되고 있는 실적을 성과관리(계약건수 등)로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결과('18.5.28)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년도 사업실적은 업체 참여 수, 국내·외 참가도시 수, 국내·외 기업 및 구직자 참가 수 등을 제시하고 있음.

'20년도는 해외 바이어 초청규모를 확대하여 초청비를 포함한 행사운영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사업명만 변경하였을 뿐 시정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바, 전체적으로 사업의 예산 규모 및 수행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서울 관광 M.V.P 테마코스(신규, 사업별 설명서 149쪽)

-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2019~2023)에서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서울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코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해 2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서울은 역사·문화, 자연환경, 전통과 현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광 콘텐츠와 상품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개별 여행객 증가로 여행목적이 세분화되어 다양한 관광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서울의 다양한 테마코스를 개발·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됨.

민간전문수행업체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글로벌 기업협력 콘텐츠 제작 및 확산’ 2억원, ‘테마코스 상품화유도를 위한 공모전 추진’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 어드바이저’, 글로벌 기업 ‘고프로’와 협력하고 중화권 인기 플랫폼 내 정보 확산을 위한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구글 및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연계 키워드 검색 및 배너광고, 서울관광 홈페이지와 SNS채널을 활용한 이벤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관광 중기 발전계획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나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관광콘텐츠의 개발 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 웹사이트와 SNS 채널 활용 및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사업 등 형식적인 면에서 다를 바 없어 신규사업으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서울의 관광 장소’를 찾기 위한 사업으로 집중하여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 원칙에 따라 양질의 콘텐츠를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운영(신규, 사업별 설명서 152쪽)

- 관광특구 내에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2억원이 신규편성됨.

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까지 주요 관광도시 표지판 안내체계는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도 외래 관광객에게 스마트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나,

사업초기에는 관광특구로 시작되더라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및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관광특구 내에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특구 외 타 자치구에는 서울시가 직접사업으로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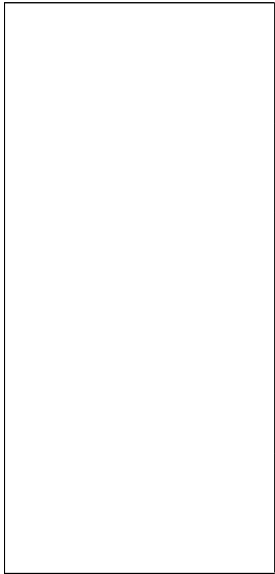
이에 “자치구 디지털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별설명서 63쪽)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되어 지방보조금으로 교부될 예정임.

자치구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표준화된 사양 및 매뉴얼 부재로 일관된 품질의 관광안내 정보전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저품질 관광콘텐츠를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예산안 산출근거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특화 콘텐츠 제작 = 150,000천원
		- 콘텐츠 촬영 3,000개*40,000원 = 120,000천원
		- 콘텐츠 편집, 가공 1식*10,000,000원 = 10,000천원



- 외국어 번역(4개 국어)
4명*5,000,000원
= 20,000천원
- 디지털 안내표지판 도시협력 프로모션
= 50,000천원
- 프로모션 포스터 제작, 편집
1회*20,000,000원
= 20,000천원
-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 제작 및 집행
1회*20,000,000원
= 20,000천원
- 디지털 콘텐츠 연구 육성 협의체 운영
1개 도시*10,000,000원
= 10,000천원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시범 운영 현황>



□ 서울 관광서비스 안내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신규, 사업별 설명서 156쪽)

- 서울관광서비스 안내체계 통합 운영에 대한 조기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됨.

'18년 6월 언론에 서울시 관광정보센터 관리·운영 문제점이 보도되자 시장이 “관광정보센터 이용률 저조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18.6.27)이 있어

서울 관광안내체계의 정비과정에서 관광안내소·정보센터를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게 됨.

<관련 언론보도>

- ✓ 서울 외국인관광객 천만시대, 수십억 들인 관광안내센터는 ‘무용지물’... 서울시내 센터 5곳 중 3곳이 평균 방문객수 밑돌고 이용률 갈수록 떨어져 (이데일리, '18.6.27.)

관광정보센터 통합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재단 고유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재단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과제는 재단 출연금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관광도시 조성 및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 과 같은 재단 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자치구 디지털관광안내표지판 설치(시민참여, 사업별 설명서 163쪽)

- 시민참여 예산으로 신규편성된 “자치구 디지털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서초구 내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을 신설하고자 1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해당 자치구에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임. 디지털관광안내표지판을 통해 기본 관광정보(날씨, 환율, 지도) 및 특화관광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운영”(사업별 설명서 152쪽) 사업은 관광특구 내 설치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 중복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장안편사놀이 정기공연 운영(신규, 사업별 설명서 187쪽)

- 전통문화유산 장안편사놀이 정기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시 무형문화재를 육성·지원하고, 전통무예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안 편사놀이 정기공연 및 전통 활쏘기 체험교실을 운영으로 1억원이 신규편성됨.

사업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 활쏘기 문화이자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장안편사놀이 정기공연을 통해 국공무예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혹서기를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등에서 약 12회 이상 정기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음.

현재 문화본부 내 역사문화재과에서 남산골한옥마을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관리 및 관광진흥을 위한 전

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통문화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전통문화를 통한 관광진흥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광체육국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이 없어 불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짐.

또한 남산골 한옥마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국민의 여지가 남음.



<풍물패 길놀이>



<편사놀이>



<악공(장구, 피리, 대금)>

다. 체육분야 주요사업 검토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신규, 사업별 설명서 209쪽)

-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 침출수처리장 부지에 건립 중인 산악문화체험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신규로 3억원이 편성됨.
-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서울시가 부지(3,000㎡, 11억4천만원)를 제공하고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이하 재단)이 국비(50억), 구비(10억), 성금모금(27억원)을 통해 건축비를 마련하여 재단이 준공하여 최장 20년 이내로 무상사용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15년 12월)할 계획이었으나 재단이 목표한 성금모금액 29억원 중 2억 5천만원만 모금하여 '18년 3월, 공정률 93%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됨.

재단은 추가로 성금을 모금할 여력이 없고 문체부의 추가지원도 힘든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할 경우 토지 및 기투입된 건축비의 기회비용이 수반되므로 운영권(무상사용 수익허가)을 포기('19년 3월)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부족한 건립비용에 대해 예산지원을 희망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서울시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 '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추경(제287회 정례회)을 통해 20억원이 편성됨.

서울시와 재단 간 체결한 협약서('14년 7월)에서 서울시는 부지제공 및 행정지원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재단에서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서울시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시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 외장공사 지연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타당성심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전액 명시이월됨. 한편 동 사업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1.)에 따르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경우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목과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기능보강과 같은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메르스 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 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신규 건립시설로 유지보수 비용이나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변경계획”(’19. 6.)에서 공용 시설비, 전시공간 시설비, 체험공간 시설비, 가구 및 인테리어 등 2억원의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웠으며 ’20년 민간위탁금 3억원(6개월 분)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서울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23군데 중 유일하게 ‘서울주얼리 지원센터 제2관’만 인테리어 개선 비용 등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동 민간위탁도 위탁방식(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민간위탁 현황>

(’19.10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	
민간위탁(건)	386	252	111	23

□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조성(신규, 사업설명서 217쪽)**

- 광진구 체육시설부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 공원, 환승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통합개발하기 전 지방재정법에 의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수수료 2억원을 편성함.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는 청소년수련관, 구민체육센터, 콘서트홀, 빗물펌프장이 설치되어 난개발 상황이었으며 사유지와 공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공공개발체육센터에서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부지 교환(안) 등을 수립하기 위한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기본 구상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고 시·구간 토지교환을 추진하였음.

우리 상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 (제278회 임시회, '18.2.)에서 시·구 간 협약에 따라 시 재산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토지교환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음.

이후 '18년부터 광진구 의견을 반영한 기본구상안을 내고 '19년 5월부터 주민설명회 등 협의를 완료함. 이에 '19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시 재정 570억원과 수탁사 643억원으로 총 1,213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광장 및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임.

향후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및 관련 사전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산안 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집행액	집행내용	비고
2013년	12,679	○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내 사유지 매입협의 및 수용 비용 - 8필지 7,170㎡ 매입 (총 32,415백만원 집행)	
2014년	19,736		
2017년	47	○ 「광장동 체육부지 개발을 위한 기본 조사 용역」비용 - 용역기간 : '16.12. 4. ~ '17. 4.28.	'16년 편성 예산 사고이월 후 집행
합계	32,462	-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설명서 238쪽)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4%인 6억 3천2백만원 증액된 147억 9천4백만원이 편성됨.

현재 20개 종목 21개팀으로 지도자 30명, 선수 145명이 활동하고 있음. 서울시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여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각종 국내·외대회 출전 및 훈련, 재능나눔, 사회공헌을 사업내용으로 함.

'20년 주요 증액사유는 지도자와 선수 연봉 2.8% 인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자수당을 인상, 도쿄올림픽 참가 여비 및 선수단 격려금(15명) 지원, 장비구입 및 합숙소 편의물품 지원을 위한 것임.

평소 자원부족으로 우수선수 육성,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뿐 만 아니라 엘리트선수들 육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제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민간기업에서 운영을 기피하는 종목 운영을 확대하여 비인기 취약 종목을 활성화하고 종목 간 균형을 맞추어 노력해야 할 것임. 한편 '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20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지만 개최지 가산점에 의한 것으로 우수 선수 영입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예산안 산출근거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민간위탁금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14,162,243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14,794,362
	- 인건비 = 10,522,861	- 인건비 = 10,973,103
	- 기본경비 = 2,233,559	- 기본경비 = 2,284,918
	- 일반운영비 = 1,405,823	- 일반운영비 = 1,535,341

□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지원(사업별설명서 247쪽)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년도 대비 22%인 7억 4천만원이 증액된 40억 8천만원이 편성됨.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유·청소년(만5세에서 18세)에게 체육시설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인당 매월 8만원씩, 연간 8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임.

재원은 국비 70%, 시비 및 구비는 각 15%씩 부담하고 있으며 최대 지원인원 7,500명을 기준으로 추산함에 따라 증액 편성됨.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지원”(사업별설명서 251쪽)은 '19년도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년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인 바, 전년도 대비 204%인 2억 4천8백만원 증액된 3억 7천만원이 편성됨.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등록된 장애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 일부를 대상으로 함.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등록 시설에 한하고 있어 시설 확대를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문화,체육 분야의 바우처 지원사업은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각 자치구 및 지역센터 등의 협업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사업설명서 254쪽)

-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시기가 '21년 9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어 본격적인 올림픽 유치활동을 준비하고자 전년도 대비 38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된 40억 5백만원이 편성됨.

그 간 우리상임위원회는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동의안」('18.12.)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위한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동의안」('19.08.)을 동의하였으며,

남·북간 도로 및 철도 구축 등 북측의 사회 인프라(SOC) 구축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총 3조 8,570억원 중 서울시는 1조 1,571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어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등과의 밀접한 업무 협조, 사회적 동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서울시는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올림픽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4억5천만원), 올림픽 유치 범업 사업(2억원), 올림픽 유치 관련 기재부 타당성조사 용역(1억원) 등을 집행하였음.

'20년도 주요 증액요인으로 올림픽 개최 관련 여론조사, 유치계획서 작성, 실무 TF 구성 및 운영, 올림픽 유치 범 조성을 위한 국내·외 프로모션,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 등으로 35억 6천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IOC주최 올림픽 범업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억원, 올림픽 유치도시 국제부담금으로 1억 2천만원이 편성됨.

또한 국제스포츠회의인 제25차 ANOC 서울 총회를 대한체육회와 공동 주관으로 '20년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2020년 제25차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총회 개최”(사업별설명서 261쪽)로 12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됨.

서울은 ANOC 총회를 제5차('86년), 제15차('06년)에 개최하였으며 '20년 ANOC총회에서는 IOC위원(70여명 참석) 대상으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행사 개최를 위한 임차료 7억 5천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사성 사업으로 시 투자심사 대상(3억 이상~30억 미만)에서 적정 결과를 받음.

2032년 올림픽 유치 관련 준비는 한치 앞도 예견하기 어려운 남북 관계 속에서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최소한의 예산만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궁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신규, 사업설명서 264쪽)

- 궁도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원이 신규 편성됨.

서울시는 국궁 관계자(서울시궁도협회, 석호정, 황학정 내 국궁전시관장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활터의 열린공간 조성 및 국궁 활성화 방안 마련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국궁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계획을 보고('19.8.6, 시장)하고 활쏘기 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하여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제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국궁의 역사적 사료 및 문헌 조사·연구, 전국의 전통 활터 보존 및 운영 등 현황조사, 옛 활터 유적 발굴 및 복원방안, 국궁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방안을 과업의 주된 내용으로 함.

이러한 전통 활쏘기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나, 문화계승 측면의 연구로 관광자원화는 부차적인 목적으로 보이므로 관광체육국 내 편성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사업별 설명서 282쪽)

- 자치구 단위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역량 강화예산으로 10% 증액된 102억 6백만원이 편성됨.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생활체육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뉴딜일자리)로 '01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06년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시행됨.

'17년 322명에서 '20년은 344명으로 점차 증원하고 있는 추세이며,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 1년차 지도자와 재계약을 통해 10년 이상 활동한 지도자간 임금 격차가 적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으며 서울시는 기금을 통해 지도자 휴일근무수당, 현장지도 활동수당(연차별 차등지원)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원(체육진흥기금“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사업별설명서 534쪽))하고 있음.

이러한 생활체육지도자가 받는 수당은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음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국비, 시비(일반예산 및 기금) 매칭으로 자치구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바, 실제 사업주인 자치구체육회가 수당에 대한 세금 신고 후 근로자와 함께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20년부터 구 체육회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수당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타시·도(세종, 제주 제외)의 경우 기초단체가 지방비의 일부(25%) 또는 전부(50%)를 부담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음. 실제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은 자치구 지원업무로 시·구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재정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추후 인건비와 수당 등을 일반예산과 기금으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체육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신규, 사업별 설명서 313쪽)

- 생활체육시설 현황과 체육시설 정보를 통합하여 시의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간 정보 공유와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자발적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2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845개는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국, 평생교육국 등 관리주체가 상이하어 전반적 현황 파악 및 통합·체계적 관리부재로 시민 체육활동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민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목표를 갖고 있음.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상이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통합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예약서비스 홈페이지(<http://yeyak.seoul.go.kr/main.web>)를 통해 체육시설대관, 자치구시설대관, 문화행사 등을 안내하고 있어 별도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생활·학교·공공·중소규모·민간협력)체육시설 확충(사업별설명서335쪽)**

- 서울시는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으로 '22년까지 약 3천7백억원을 편성하여 모든 주민이 집에서 도보로 5분~10분거리 이내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 시설(체육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마을주차장 등)을 확충하고자 함.

체육시설은 “2023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19.6.25)” 과 “정부의 생활 SOC 3개년('20년~'22년) 계획”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했으나, '20년 (생활·학교·민간협력) 체육시설 및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및 지원 사업 규모는 약 66억원 감액편성함.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별설명서 335쪽)은 전년도 대비 1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별설명서 339쪽)은 지역주민 개방조건으로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개·보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5개구 자치구별 2개교씩 지원해오던 것을 21억원 감액 편성으로 전체 30개교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음.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사업별설명서 342쪽)은 장애인, 노약자 등 체육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별설명서 346쪽)도 34억 6백만원 감액 편성함.

서울시는 “2023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19년~'23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자치구 수요조사를 반영한 것이라 하나,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자치구 자본보조를 확대하고 기 건립된 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내 초·중·고·대학교나 민간기업의 유휴공간을 주민 개방조건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4회 전국 장애인학생체육대회 개최

- 서울에서 제14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5.16~5.19)와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5.30~6.2)가 개최됨에 따라 경기장 개보수비, 대회 운영비, 경기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68억 5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6.3%인 430억 4천4백만원이 감액됨.
- 대한체육회의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제2조제4호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지역에서 그 다음 해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19년도에 이어 '20년도도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됨.

5월 19일부터 4일간 잠실주경기장 등 16개(예정) 경기장에서 골볼, 보치아, 조정 등 16개 종목으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종목>

구분	종 목 내 역
육성종목(5)	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
보급종목(10)	농구, 디스크골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역도, 조정, 축구, 플로어볼, e-스포츠
전시종목(1)	술런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30일부터 4일간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등 36개 종목으로 대회가 열릴 예정임.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

구분	종 목 내 역
정식종목(36)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양궁, 사격,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근대3종, 롤러, 카누, 조정, 볼링, 요트, 철인3종, 골프, 바둑, 승마, 에어로빅

중점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 경기장 확보를 위해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별설명서 367쪽)로 8억원이 편성됨. 1월부터 6월까지 종목별 경기장 공승인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것으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예정임. 제100회 전국체전을 위해 경기장 개·보수비용으로 16년부터 19년 추정까지 총 501억 1천1백만원(시비)이 편성되었고,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체전 개최 이후에도 건립 및 개·보수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당부하였음. 대회 규모와 성격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소년체전을 위해 또 다시 시설 개보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경우 대부분 서울·경기권으로 배정이 되어 있으나,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경기장 배정(안)>

종목연번	종목	종별	경기장(안)
1	골볼	시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
2	농구	지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3	배구	지적, 청각	장충체육관
4	배드민턴	지적, 청각	계남다목적체육관
5	보치아	뇌병변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6	볼링	지체, 지적, 청각, 시각	스핀볼링센터 가든5
7	수영	지체, 지적, 청각, 시각	문학박태환수영장
8	술린	지적	월계문화체육센터
9	역도	지적, 지체	올림픽홀
10	육상	지체, 지적, 청각, 시각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11	조정	시각, 지적	미사리조정경기장
12	축구	지적	목동주경기장
13	탁구	지체, 지적, 청각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탁구	시각	올림픽파크텔
14	e-스포츠	지체, 지적, 청각	은평다목적체육관
15	플로어볼	지적	서초종합체육관
16	디스크골프	지적	중랑문화체육관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장 배정(안)>

종목연번	종목	종별	경기장(안)
1	검도	초등부, 중등부	성남고등학교 밀레니엄홀
2	골프	전종별	드림파크CC
3	근대3종(복합)	중등부(복합)-육상,사격	한국체육대학교 운동장
	근대3종(수영)	중등부(수영)	한국체육대학교 실내수영장
4	농구	초등부(여), 중등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농구	초등부(남), 중등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
5	럭비	중등부	육군사관학교 을지구장
6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자유형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7	롤러	전종별	이촌한강공원 롤러스케이트장
8	바둑	전종별	종량문화체육관
9	배구	초등부(남, 여)	장충체육관
	배구	중등부(남)	세화여자고등학교 체육관
	배구	중등부(여)	중앙여자고등학교 체육관
10	배드민턴	전종별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
11	복싱	중등부	SETEC(중복)
12	볼링	중등부	스핀볼링센터 가든5
13	사격	공기소총, 공기권총	대구국제사격장
14	수영	경영	김천실내수영장
	수영	다이빙	김천실내수영장
15	승마	중등부	드림파크승마장
16	씨름	초등부, 중등부	SETEC(중복)
17	야구소프트볼	초등부(남)	신월야구공원
	야구소프트볼	중등부(남)	목동야구장
	야구소프트볼	중등부(여)	구의야구공원
18	양궁	전종별	예천진호국제양궁장
19	에어로빅	전종별	올림픽홀
20	역도	중등부	우리금융아트홀
21	요트	중등부	난지한강공원
22	유도	초등부, 중등부	KBS스포츠월드 아레나
23	육상	전종별	잠실종합운동장올림픽주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24	자전거	중등부	양양종합스포츠타운 사이클경기장
25	정구	전종별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26	조정	중등부	충주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27	철인3종	중등부	여의도한강공원
28	체조	기계체조	올림픽체조경기장
	체조	리듬체조	올림픽체조경기장
29	축구	초등부(남)	목동주경기장
	축구	초등부(여)	효창운동장
	축구	중등부(남)	노원마들스타디움
	축구	중등부(여)	강북구민운동장
30	카누	중등부	미사리조정경기장
31	탁구	전종별	서초종합체육관

32	태권도	전종별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
33	테니스	전종별	장충장호테니스장
34	펜싱	중등부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35	하키	중등부	아산학선하키장
36	핸드볼	초등부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핸드볼	중등부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여전히 소년체전의 경우 일부종목이 대구, 김천, 예천 등에서 개최될 예정임. 한편 이동식 임시 화장실, 조립식 임시 관람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전 임시시설 설치”(사업별설명서 370쪽) 2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100회 체전과 39회 장애인 체전은 현장에서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이니 만큼,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경기운영비로 “전국소년체전경기운영부 지원”(사업별설명서 380쪽) 21억 2천4백만원, “전국장애학생체전경기운영부 지원”(사업별설명서 406쪽) 10억 7천8백만원이 편성됨.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경기장 임차 및 사용료, 경기장 공승인비, 경기용기구 구입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원하고자 함.

▲ 운영 지원을 위해 “전국소년체전 운영 지원”(사업별설명서 376쪽) “전국장애학생체전 운영 지원”(사업별설명서 402쪽)으로 9억 2천5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체전 준비운영 사무관리비, 경기장 편의물품 임차, 대회운영본부 설치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개최식 및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식 운영 지원”(사업별설명서 386쪽) 3억 6천6백만원,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전 홍보 및 문화행사”(사업별설명서 392쪽) 5억5천5백만원,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전 환영 및 응원”(사업별설명서 399쪽)으로 2억 5천2백만원이 편성됨.

소년체전의 경우 개최식이 생략되었고, 시기적으로 먼저 개최되는 장애학생체전만 개최식을 계획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해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2억5천만원이 편성됨. 1월부터 대회 종료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 선발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 원활한 대회진행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독려하여 함께 즐기는 체전이 되어야 할 것임.

’19년도 전국체전에 이어 ’20년도 소년체전 개최를 위한 예산편성이 관광체육국 내 시설개·보수, 체육시설 건립지원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예산 등 관광·체육분야의 복지사업과 비교해 볼 때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재정부담만 가중시킨 무의미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19년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사업 운영을 통해 습득한 경험을 살려 저예산 고효율의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함.

또한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 개최를 통해 청소년 체육문화진흥과 스포츠도시 서울로 거듭날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임.

라.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8쪽)

□ 개요

- '18년 4월 출범한 관광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재정지원)와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및 기금)를 근거로 재단 운영경비 및 사업예산을 편성함.

'18년도에는 재단 설립 전 방식대로 시와 협약에 따라 대행사업 (대행사업비+수수료)으로 운영해왔으며 '19년부터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고유사업비+운영비)으로 재단을 운영함.

< 2018년 대행사업 체제 >

수입		지출
대행사업 예산	사업비	대행사업비
	수수료 (22.3%)	운영비



< 2019년 고유사업 체제 >

수입	지출
출연금	고유사업비
	운영비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본부 운영비 106억 5천만원과 사업비 431억 5천만원 등 전년도 대비 177억 5천9백만원 증액된 538억 1천2백만원이 편성됨.

본부 운영예산은 '19년도 신규채용 인력(23명) 인건비 및 인상률 ('20년 임금 인상률 2.8%, 경력상승분 1.4%) 반영으로 11억 1천만원 증액된 57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비로 여비 5천만원, 재단 중장기 경영혁신 컨설팅 1억 8천만원, PC교체비 5천만원,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강화 5천만원, 교육훈련비·업무추진비·운반비 등 5천만원이 증액된 73억 8천만원 편성하고



'19년도('18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평가를 받아 1억 8천만원 증액된 4억 7천만원이 성과급으로 편성됨.

또한 예비비로 '20년 신규 총원 인력분(14명)의 인건비 6억 1천만원을 편성함.

사업비는 계속사업(22개)이 전년도 대비 7억 7천만원 감액된 258억 5천만원, 신규사업(5개)이 173억원 편성됨.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재단으로 '주요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사업이 이관되며 87억 8천7백만원, '잘생졌다 서울 여행자터미널 구축·운영' 16억 6천만원,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65억원, '2020년 UIA아태총회 개최' 2억원, 'UNWTO 국제기구 협력사업' 1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MICE 관련 사업 등 기존 계속사업은 7억 7천7백만원 감액 편성됨.

<지출예산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출연금	2020년 출연금	증감	증감률
합계	36,053	53,812	17,759	49.3%
본부 운영비	9,431	10,653	1,222	13.0%
인건비	4,683	5,795	1,112	23.7%
경비	3,397	3,783	386	11.4%
성과급	291	467	176	60.5%

	예비비	1,060	608	△452	△42.6%
고유 사업비		26,622	43,159	16,537	62.1%
	관광시민이 행복한 생활 관광 실현	4,644	14,834	10,190	219.4%
	서울관광 콘텐츠 홍보 및 관광생태계 지원	6,469	12,859	6,390	98.1%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	4,000	4,165	165	4.1%
	글로벌마케팅, R&D를 통한 부가가치 기반 강화	11,509	11,301	△208	△1.8%

- 재단의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의 대행·보조금 사업 중 일부를 고유사업으로 이관하였으나 여전히 대행체제로 수행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함.

여행주간 운영(4천 5백만원), 비정규직노동자 휴가비 지원(11억원), MICE유치 및 개최지원(47억 5천만원),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2억원),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14억 6백만원), 관광스타트업 육성지원(9억 4천8백만원),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12억원),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협력(2억 8천4백만원), 해외 핵심 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6억 2천2백만원), 외국인 환승 관광 지원사업(1억원),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운영(13억 9천7백만원), 의료관광 활성화(9억 2천7백만원), 한류관광 활성화(5억 2천만원)로 총 13개의 사업을 대행으로 수행하고 있음.

재단은 고유사업('20년도 431억 5천9백만원 규모)과 대행사업('20년도 139억 6천8백만원 규모)을 수행하는 바, 인력 규모(일반직 현원 81명)에 맞는 적정 수준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방대한 사업 양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년도 고유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소계	26,622	43,159	16,537	62.1%
관광시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실현	4,644	14,834	10,190	219.4%
디스커버 서울패스 활성화 지원	1,180	1,186	6	0.5%
관광시민정보 제공	640	400	△240	△37.5%
서울시민관광 아카데미	470	470	-	-
유니버설관광환경 조성	2,354	2,331	△23	△1.0%
주요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신규	-	8,787	8,787	-
서울로7017 '잘생겼다 서울' 여행자 터미널 신규	-	1,660	1,660	-
서울관광 콘텐츠 홍보 및 관광생태계 지원	6,469	12,859	6,390	98.8%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1,657	1,760	103	6.2%
서울관광 해외디지털 통합마케팅	1,800	1,740	△60	△3.3%
서울관광 대표지도(안내서) 제작	500	440	△60	△12.0%
2020서울빛초롱축제	833	836	3	0.4%
서울체험관광 육성 및 활성화 지원	970	770	△200	△20.6%
서울섬머세일	209	203	△6	△2.9%
아시아·중동지역 특화관광사업	300	410	110	36.7%
서울관광불편처리센터	200	200	-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신규	-	6,500	6,500	-
교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	4,000	4,165	165	4.1%
전략적 컨벤션 마케팅	1,100	1,000	△100	△9.1%
기업회의·인센티브 전략적 유치 강화	720	682	△38	△5.3%
MICE 유니크 콘텐츠 개발 및 확산	850	940	90	10.6%
MICE 민관협력 및 PLUS SEOUL 활성화	980	1,023	43	4.3%
MICE 글로벌전문가 양성	350	320	△30	△8.6%
2020년 UIA 아태 총회 개최 신규	-	200	200	-
글로벌마케팅, R&D를 통한 부가가치 기반 강화	11,509	11,301	△208	△1.8%
서울글로벌마케팅	9,023	9,200	177	2.0%
서울관광설명회 개최 및 해외시장 관광교역전 참가	514	485	△29	△5.6%
UNWTO 국제기구 협력사업 신규	-	167	167	-
관광·MICE 통계분석	420	420	-	-
서울시민·외국인 관광실태분석	567	529	△38	△6.7%
관광도시 조성 및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	985	500	△485	△49.2%

□ 신규 사업

주요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신규, 재단 사업계획서 31쪽)

- 서울 관광 안내 시설 및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관광정보센터 운영, 고정식 및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하고자 '주요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에 87억 8,717만원을 편성함.

이는 증가하는 관광안내 수요에 대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05년도부터 서울관광협회가 대행하여 관리하던 고정식 안내소(10개소)와 움직이는 안내소(9개소) 및 '08년도부터 서울관광재단((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대행한 6개소의 관광정보센터를 서울관광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

<서울 관광정보 인프라 현황>

구 분(개소)	현 황
관광정보센터(6개소)	명동, 인천공항T1(동·서), 인천공항T2, 김포공항, 서울역, 용산역
고정식 안내소(10개소)	남대문, 이태원, 동대문, 삼일교, 홍대, 광화문, 시민청, DDP, 신촌역사, 삼청로
움직이는 안내소(9개소)	광장시장, 명동, 남대문, 신촌, 동대문, 북촌, 홍대, 삼청동, 고속터미널

예산 세부내역으로 고정식 안내소, 움직이는 안내소 운영사업의 재단 이관에 따라 69억 3천6백만원, 관광 안내 통합 아카데미 추진 등 센터 운영비 4억 4천5백만원, 명동관광정보센터 등의 연간 임대료 4억 4백만원, 인건비 상승 예상분 반영 및 본사 관리직 증원분 등을 반영한 10억 2백만원이 편성됨.

<예산 세부편성 내역>

과목구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경비		○ 센터 운영 = 807,406천원 - 행사홍보비(환대서비스 등) = 70,400천원
		- 교육훈련비(관광 안내 통합 아카데미) = 46,206천원
		- 피복비 = 161,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6,500천원
		- 수선유지비 = 48,000천원
		- 지급임차료(명동센터 임대료 등) = 404,000천원
		- 보험료 = 500천원
		- 소모품비 = 57,600천원
		- 여비, 업무추진비 등 = 13,200천원
		○ 지급수수료(업무 위탁 등) = 6,936,000천원 - 고정식 및 움직이는 안내소 업무 위탁 = 6,875,000천원 -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 지급 제비용 = 61,000천원
인건비		○ 사업계약직 인건비(보수, 제수당, 퇴직급여) = 857,360천원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사무로써 그동안 서울관광재단이나 서울관광협회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수행해 옴.

'20년부터 관광정보센터, 고정식 안내소, 움직이는 안내소를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경우 인프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다만 기존에 서울관광협회에서 운영하던 고정식 안내소와 움직이는 안내소 운영을 다시 제3자(서울관광협회)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는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재단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후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입찰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임.

한편 '20년부터 임차료가 신규로 편성된 명동 관광정보센터는 '13년 11월 개관 이후 서울시관광협회(관광불편처리센터)와 KEB하나은행 외국인근로자 전용센터가 공간을 공동사용 해왔으며,

서울시와 KEB하나은행은 5년간('13.10.1.~'18.9.30)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연장에 합의하여 사용대차 계약('18.10.1.~'19.8.31)을 체결하였음.

이후 '19년 8월에 부지 및 건물 소유권이 KEB하나은행에서 부영그룹으로 이전되어 올해 말까지 무상전대한 후 건물 소유자(부영건설)의 내부 방침에 따라 무상임대(전대)가 아닌 유상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관련임차료가 신규 편성됨.

<명동관광정보센터 부동산 임대차(전대차)계약 추진경과>

날 짜	내 용			
'13.9. 23.	서울시-KEB하나은행 부동산 임대차(명동관광정보센터)계약 ('13.10.01~'18.09.30.)			
'18. 2. 1.	KEB하나은행 업무협약 파기 통보 - 3년 협약 및 명동관광정보센터 부동산 임대 관련 계약해지 통보 - 김영란법에 의한 금융감독원 지침 위반사항 통보 (준법감시팀)			
'18.6. 18.	KEB하나은행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및 명동관광정보센터 부동산 전대차 계약 체결('18.10.01~'19.8.31.)			
'19. 8.	명동관광정보센터 부지 및 건물 소유권이 KEB하나은행 → 부영그룹으로 이전 ('19.8.31.)			
	센터 부지 및 건물 소유권 이전에 따른 계약갱신 협의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2019년 계약 소요비용</th> <th style="width:50%;">2020년 계약 소요비용</th> </tr> </thead> <tbody> <tr> <td>- KEB하나은행 제시안: 약 4억 9천만원 - 서울관광재단 제시안: 무상전대 => 서울관광재단 제시안으로 협의 확정 (기간: 2019.8.30. ~ 2019.12.31.)</td> <td>- KEB하나은행 1차 제시안: 약 14억 6천만원 - 서울관광재단 제시안: 무상전대 - KEB하나은행 2차 제시안: 약 4억 4천만원 => KEB하나은행 2차 제시안으로 세부 협의 중 (기간: 2020.1.1. ~ 2020.12.31.)</td> </tr> </tbody> </table>	2019년 계약 소요비용	2020년 계약 소요비용	- KEB하나은행 제시안: 약 4억 9천만원 - 서울관광재단 제시안: 무상전대 => 서울관광재단 제시안으로 협의 확정 (기간: 2019.8.30. ~ 2019.12.31.)
2019년 계약 소요비용	2020년 계약 소요비용			
- KEB하나은행 제시안: 약 4억 9천만원 - 서울관광재단 제시안: 무상전대 => 서울관광재단 제시안으로 협의 확정 (기간: 2019.8.30. ~ 2019.12.31.)	- KEB하나은행 1차 제시안: 약 14억 6천만원 - 서울관광재단 제시안: 무상전대 - KEB하나은행 2차 제시안: 약 4억 4천만원 => KEB하나은행 2차 제시안으로 세부 협의 중 (기간: 2020.1.1. ~ 2020.12.31.)			
'19. 9.	기존 임대 계약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 및 계약 주체 변경 - '20년 이후 센터 사업의 재단 고유사무화를 고려하여 계약 주체 재단으로 변경 - 무상전대차 계약 기간 연장('19.8.30.~'19.12.31.)			
'19. 11. ~	2020년 이후 유상전대차로 변경 및 계약체결 확정을 위한 세부 협의 중			

<'20년도 종합관광정보센터 임차료(안)>

(단위: 천원)

구분	소계	세부내역
합 계	404,000	
명동관광정보센터	396,000	33,000천원x12개월
인천공항(T1, T2)센터	6,816	568천원(관리비, 전기료, 통신료 등)x12개월
서울역, 용산역센터	1,184	전기시설 부담금 800천원 관리비(통신료 포함) 384천원

※ 임차료(안)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서울로7017 '잘생졌다 서울' 여행자 터미널 (신규, 재단 사업계획서 35쪽)

- 서울로7017을 활용한 도심형 여행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잘생졌다 서울'의 주요 시설 간 연계하는 통합 관광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위해 16억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됨.

'잘생졌다 서울'은 서울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롭게 개방한 곳으로 △역사·문화테마의 덕수궁 돌담길, 문화비축기지, 여의도 지하비밀벙커, 봉제역사관 등 8개소와 △도시·건축테마 서울로7017, 돈의문 박물관마을, 다시·세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4개소 △과학·경제테마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혁신파크 등 8개소 등 총 20개의 명소임.

예산 세부내역으로 서울로7017여행자 터미널 설치 및 운영 1억원,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모니터링 등 기타경비 1억원, 주요시설별 여행자 프로그램 운영 4억원, 여행자 투어버스 프로그램 운영 1억 6천만원, 이용자 주도형 홍보마케팅 캠페인 등 통합 홍보 마케팅 5억원 등이 편성됨.

<예산 세부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과목구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로7017 여행자 터미널 설치 및 운영 5,000천원*2개*10개월 = 100,000천원 ○ 주요시설별 여행자 프로그램 운영 40,000천원*10개소 = 400,000천원 ○ 여행자 투어버스 프로그램 운영 1,000천원*8회*10개월*2대 = 160,000천원 ○ 통합 홍보마케팅(디자인, 인쇄물, 광고 등) =200,000천원 ○ 이용자 주도형 홍보마케팅 캠페인 = 300,000천원 -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10,000천원*10개월

과목구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 100,000천원 - 시민주도형 홍보마케팅 캠페인 20,000천원*10개소 = 200,000천원 ○ 여행자 주간행사 운영 = 100,000천원 ○ 웹 아카이브 구축 = 100,000천원 ○ 여행자 터미널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 40,000천원 ○ 자문회의 등 회의운영비 = 55,000천원 - 자문/평가회의 150천원*10명*36회 = 54,000천원 - 업무회의비 20천원*5명*10회 = 1,000천원 ○ 사업단 운영비(소모품비, 교통비 등) = 5,000천원 ○ 복리후생비 = 21,560천원
인건비		○ 사업계약직 인건비(보수, 제수당) = 178,440천원

서울로7017은 '17년도 5월 개장이후 (주)서울관광마케팅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관광시설 3개와 식도락 관광을 위한 식음시설 5개로 총 8개 시설을 운영하였으나, 개장 이후 12월부터 한달 간 전체시설 하자보수 공사로 전 매장의 정상영업이 불가하였고 동절기 관광객 감소로 '17년도 기준 총 6억 7,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서울관광재단은 운영적자 누적 및 지속적인 적자 예상으로 푸른도시국에 '서울로7017 관광편의시설' 통합운영사무를 반납 요청('18.5)하였으며 '18년도 손실금액에 대한 보전금 3억 8,9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함.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관광안내소, 카페 등을 서울관광재단에 위탁했으나 1년도 안돼 운영을 포기했고 수익창출형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추경으로 보전해줬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후 서울시는 서울로7017의 민간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3월부터 두 차례 입찰 공고를 냈지만 같은 업체 한 곳만 지원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임.

동 신규사업은 서울을 방문하는 단체·개별 여행객을 위해 서울로7017에서 운영 중인 서울로 문화센터를 주거점시설로 서울로 정원센터, 서울로 안내소 등을 부거점 시설로 하여 여행자터미널(관광안내센터)를 설치 하고, ‘잘생겼다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여행 프로그램 운영 및 투어버스 운영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임.

<7017여행자센터의 기능>



또한 여행자센터 운영을 위해 재단 내 부서신설 및 3명의 인력을 배치 하고 서비스 총괄, 홍보, 여행프로그램운영을 위해 (계약직)전문인력 3명을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재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과부화 상태에서 별도의 인력구축이 필요한 신규사업이 현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며,

새로운 위탁업체의 운영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서울로 7017을 민간위탁운영하며 실패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전략사업 내 추진내용 및 관련 예산(안)>

사업명(가칭)	주요 내용	거점공간	추진기관 (예산(안))
1. 2020 세운에서 배우다 - 천변만화(千變萬化)시리즈	· 시민들이 세운에서 경험하고 학습하는 행사 개최	세운상가 외	역사도심재생과 (9.1억)
2. 서울로 7017 - 잘생겼다서울 여행자터미널	· 여행자 터미널 운영 · 여행 프로그램 연계 운영 · 투어버스 운영	서울로 7017 외	서울관광재단 (16.6억)
3. 문화비축기지 - 잘생겼다서울 찾아가는 거리예술 파티	· 문화비축기지 거리예술 플랫폼 운영 · 거리예술 환경 조성 등	문화비축기지 외	서울문화재단 (21.2억)
합 계			46.9억

한편 서울시가 서울로7017, 문화비축기지, 돈의문 박물관마을 등 도시 재생 사업을 명분으로 대규모의 투자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밑빠진 독의 물붓기 식’의 예산 투입은 아닌지, 재단이 그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임.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신규, 재단 사업계획서 77쪽)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은 서울관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관광플라자를 조성하여 관광업계육성 및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65억원을 신규편성함.

유관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관광 이슈에 대응하고자 관광 스타트업 인프라(사무실, 협업공간 등)를 조성하고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휴식·이벤트·정보제공 개최 등 시민 편의기능 제공 및 시민의 견수렴의 장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음.

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廳)는 '20년부터 접근성·편의성 및 정책효과성과 상징성을 지닌 민간건물을 임차한 후, '25년에 세운4구역 업무시설에 관광플라자 조성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약 6,600㎡(2,000평) 규모의 도심지역에 임차 및 매입방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세부내역으로 6개월 분 임차료 30억 9천7백만원, 관리비 11억 9천7백만원과 시설 인테리어 20억원, 개관행사 및 홍보마케팅 등으로 4천만원 및 사업계약직 전담인력 7명의 인건비인 1억 2천만원 등이 편성됨.

건물 매입을 통한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은 약 900억원 대규모 재원이 투자됨에 따라 연차별('21년~'24년) 기금 적립을 통해 개관 비용을 마련하도록 하며 '20년 7월부터 약 4년 6개월동안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택함.

<조성 가능 건물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임차 건물명 (위치)	임차 층수	준공 /리모델	빌딩 규모	전용면적(평) (임차면적/평)	예상비용/VAT별도			비고 (1층 가능여부)
						총액	보증금	연지출 (임차료+관리비)*12	
1	TES(무교청사) (중구 무교로 21)	B1,3,4,7~ 9F	리모델	15F/ B3	2,390 (3,497)	6,849	2,922	3,927	B1 가능
2	종로타워 (종로구 종로 51)	3~5,11F, 22F (wework)	리모델	33F/ B6	1,976 (3,866)	5,389	-	5,389	1F,공유 오피스 연계 가능
3	삼일빌딩 (종로구 관철동 10-2)	4~11F	2020.9 리모델/준 공	31F/ B2	2,008 (3,017)	5,159	-	5,159	1F 가능
4	게이트타워 (종로구 평동 222)	3~5F	2020.6 준공	26F/ B7	2,010 (3,754)	11,100	4,128	6,972	1F 불가
5	콘코디언 (종로구 신문로가 115)	20~27F	리모델	29F/ B8	2,196 (4,585)	10,068	3,301	6,767	1F 가능

※ 예상비용은 12개월 기준/입주년도(1년차)는 공사비용 및 이용개월 수에 따라 임차료 변동 가능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물은 중구 무교로에 위치한 TES(무교청사)이며 이 경우 보증금 29억 2천2백만원과 연간 임차료와 관리비로 약 39억 2천7백만원이 지출될 예정임. 다만 실제 입주조건(임차료 및 보증금) 협상 결과에 따라 건물 위치 및 예상비용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어 '20년 예산안은 조성 가능 건물들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합한 금액의 면적 별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예산안에는 6개월 분의 임차료가 편성됨.

현재 서울관광재단은 '17년 9월부터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남대문세무서 건물 8층('17.9월~현재)·9층('19.3월~현재)에 임차하고 있으며 초기 설계·공사 등 비용으로 3억 3천만원과 보증금 6억 7천3백만원 및 '19년 10월까지 임차료·관리비로 17억 5천1백만원이 집행되어 약 27억 6천3백만원이 예산이 투입됨.

원활한 기금 조성으로 '25년에 관광플라자가 조성된다는 가정 하에, 현 건물로 이전한지 3년만에 약 4년 6개월간 사용할 민간건물에 현재

대비 약 4배 가량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입주하여 20억 원 이상의 초기 리모델링 비용을 또 다시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단의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현 계획대로 연차별 기금 조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플라자를 조성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며 특히 민선7기 이후 서울시 중장기 계획의 변화가 올 경우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됨.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국비 시범사업으로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어 재단과 협·단체, 스타트업의 협업 공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플라자 조성 후 협·단체와 스타트업이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임차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현 단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며, 현재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벤처보육센터, SBA(서울산업진흥원)는 마포구 창업허브에서 사무공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광분야 스타트업의 입주 시급성에 공감할 수 없음.

한편 장기적으로 매입하게 될 후보지는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의 건물로 서울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주체이며 업무시설2(지상 10층, 지하 6층, 계약면적 14,867㎡(전용면적 1,950평)) 또는 업무시설3(지상 15층, 지하 6층, 계약면적 27,726㎡(전용면적 4,343평))을 선택하여 매입 추진예정임.

<조성 규모 및 건물 가격> (예정)

구분	규 모	전체공용 (㎡)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건물가 (*평당 1,950만원)
업무 시설2	지상 10층, 지하 6층	3,664	2,767	14,867 (4,505평)	6,434 (1,950평)	879억원 (1,950만원×4,505평)
업무 시설3	지상 15층, 지하 6층	5,144	5,161	27,726 (8,402평)	14,333 (4,343평)	1,638억원 (1,950만원×8,402평)

<물건 현황>



※ 청계천 3분 거리(150m), 지하철역(종로 5가역, 종로 3가역, 을지로 4가역) 5분 거리(400m)에 위치
 향후 세운4구역 매입과 관련한 MOU 체결 및 기금조례³⁾를 제정('20년 상반기)하고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관광플라자는 기본적으로 서울관광재단의 사옥으로 사용되는 바, 현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16개 기관 중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만이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또한 서울문화재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2004년 재단창립시점부터 축적한 기본재산으로 동숭동아트센터를 매입하여 예술청으로 조성하고 있듯이 시가 직접 기금을 마련하여 관광플라자를 조성하기보다 관광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관광재단에서 사옥 겸 관광플라자로 매입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관광재단이 장기적으로 사옥을 활용한 자주재원을 마련한다면, 시 출연금 규모를 줄일 수 있기에 자체 사옥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서울시 문화본부의 경우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을 위해 적립성 기금을 '05년도에 설치한 바 있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건물 소유·임차 현황>

연번	기관명	소유 구분		
		자체	서울시	임차
1	서울산업진흥원	0	-	-
2	서울신용보증재단	0	-	-
3	세종문화회관	0	-	-
4	서울문화재단	0	-	-
5	서울디자인재단	-	0	-
6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0	0
7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	0	-
8	서울시복지재단	-	0	-
9	서울시립교향악단	-	-	0
10	서울장학재단	-	-	0
11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	0
12	서울디지털재단	-	-	0
13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	-	0
14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	-	0
15	서울연구원	-	0	-
16	서울기술연구원	-	0	-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서울의료원 제외

UNWTO 국제기구 협력사업 (신규, 재단 사업계획서 123쪽)

- 세계관광기구(UNWTO)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 확대를 글로벌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서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억 6천7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함

UNWTO와 국내 연구진 공동 협력으로 약 6개월 간 ‘(가칭)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해 연구하고 간행물 발간 및 온라인 홍보, UNWTO 관련 행사 참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재단의 외연을 확대하여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0년 UIA 아·태 총회 개최 (신규, 재단 사업계획서 35쪽)

- 동 사업은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아시아-태평양 총회의 서울개최를 통해 UIA 기준 4년 연속 세계 3위 MICE 도시 서울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원이 신규 편성됨.

UIA와 서울관광재단 간 2020 UIA 아태총회 서울 개최에 관한 합의문을 서명('19.3.14.)하였으며, UIA회원들인 국제 학회, 협회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행사 개최비 1억 6천2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2천 1백만원, 서울투어(사전/사후) 프로그램 운영 1천7백만원이 편성됨.

대표적인 국제회의의 평가 기준으로 UIA와 ICCA가 있으며 ICCA는 협회 회의로 3개국 이상 순회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국제회의로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에 명시된 국제회의 인정 기준이 UIA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매년 마이스유치지원금 등을 통한 일회성, 단발성 회의유치의 양적 성장보다 MICE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더 엄격한 의미의 ICCA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UIA/ ICCA 국제회의 기준>

구분	UIA			ICCA
	Type A	Type B	Type C	
대상	국제기구 주최 및 후원	국제적 회의		협회회의
참가자 수	50명 이상	300명 이상 또는 전시회 동반	250명 이상 또는 전시회 동반	50명 이상
해외참가	-	해외참가자 비율 40% 이상, 해외참가국 5개국 이상		-
개최기간	-	3일 이상	2일 이상	-
개최주기	무관			정기적(예: 매년, 격년)
개최지	-			3개국 이상 순회
주최기관	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협회)	국제기구의 국내지부 또는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국제적 성격의 회의		비정부간 기구(협회)
제외대상	.순수 국내회의 .종교, 교육, 정치, 상업, 스포츠 관련 국내회의 .정부 간 수준의 회의로 국제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되는 내부회의, 전문가회의, 위원급 회의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회의 .장관급회의 및 정상회의는 2009년 이후 배제대상에서 제외			.일회성 회의 (One-time meeting) .1~2개 지역 내에서만 개최되는 회의 .기업회의 .정부회의

라. 2개 체육회 예산안

(1)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사업별 설명서 221쪽)

-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각종 대회 개최 및 개최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체육 육성과 서울시 선수단의 경쟁력 강화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19년도 전국체전 참가사업비 1억 3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일부사업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0억 5천1백만원(5.8%) 감액된 179억 7천6백만원이 편성됨.

<2020년도 예산(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9 본예산	2020(안)	증 감	증감률(%)	비고
총 계	18,087,517	17,976,076	△1,051,441	△5.8	
사무관리비	25,000	25,000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14,000	-	-	
민간경상사업보조	12,986,594	12,436,131	△1,490,463	△1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061,923	5,500,945	439,022	8	

주요 사업으로 하계·동계 전국체육대회 참가, 체육활성화 사업, 체육 유공자 포상, 서울·전국소년체전 개최 및 참가, 국제체육행사 지원, 자치구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육성 및 지원,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등이 있음.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2020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0예산	2019예산	증 감	증감률(%)	비고(증감사유)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7,976,076	18,087,517	△ 1,051,441	△ 5.8%	
사무관리비	25,000	25,000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00	14,000	-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500,945	5,061,923	439,022	8.7%	
인건비	3,733,919	3,506,640	227,279	6.5%	기본급 2.8% 인상 및 2명 신규채용
기본경비	555,358	533,576	21,782	4.1%	물가상승률 1.6% 인상 등
청사관리비	1,211,668	1,021,707	189,961	18.6%	노후시설 교체비용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2,436,131	12,986,594	△ 550,463	△ 4.2%	
① 전국체육대회 참가	4,758,797	4,896,156	△ 137,359	△ 2.8%	전국체전 참가 인원 감소 등
② 체육활성화 사업	807,125	738,125	69,000	9.4%	스포츠과학센터 기자재 업그레이드 등
③ 체육유공자포상	57,000	57,000	-	-	
④ 학교체육진흥	663,271	511,845	151,426	29.6%	전국소년체전 개최 계약직 인건비(4명)
⑤ 국제체육행사 지원	1,399,250	871,800	527,450	60.5%	2032올림픽 시민추진위 운영 등
⑥ 회원단체 지원	2,396,488	2,151,688	244,800	11.4%	구체육회 행정 인력 지원 확대
⑦ 희망서울스포츠클럽 운영	200,000	179,980	20,020	11.1%	스포츠클럽 등 운영비 증액
⑧ 국제스포츠대회 등 개최	1,200,000	2,730,000	△ 1,530,000	△ 56.0%	서울오픈태권도대회 등 5개 사업종료
⑨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850,000	750,000	100,000	13.3%	운영비 부족분 일부 증액
⑩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사업	104,200	100,000	4,200	4.2%	'19년 수준에서 소폭 증액

‘국제스포츠대회 등 개최’사업은 전년도 대비 15억 3천만원 감액된 12억원이 편성됨. 서울국제테니스대회(2억9천만원), 서울국제마라톤대회(2억9천만원), 서울국제크로스컨트리대회(2억5천만원), 김운용컵 국제태권도대회(5천만원),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1억2천만원), 세계에어로빅대회(2억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6억원), 서울오픈태권도(△2억5천만원), 서울평화국제유도(△2억원), 서울세계3쿠션챌린지(△2억5천만원), 7인제국제럭비대회(△2억3천만원)은 대회 종료에 따라 편성되지 않음.

‘국제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도 8억 7천2백만원에서 5억 2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3억 9천9백만원이 편성됨. 서울-북경 교류는 전년도 파견에서 '20년도 초청으로 증액되고, 모스크바 교류는 전년도 초청에서 '20년도 파견으로 감액되는 등 일부 대회의 증감변동이 있음.

한편 신규사업으로 2032올림픽 시민추진위원회 운영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서울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사업에서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11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관광체육국과 시체육회가 각각 유치위원회와 시민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관리·운영함은 일관성의 부족과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제스포츠대회·국제체육행사 등 개최 지원사업>

(단위:천원)

통계목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 국제스포츠대회 등 개최 = 2,730,000	○ 국제스포츠대회 등 개최 = 1,200,000
	- 서울국제테니스대회 = 290,000	- 서울국제테니스대회 = 290,000
	- 서울국제마라톤대회 = 290,000	- 서울국제마라톤대회 = 290,000
	- 아시아선수권 여자배구대회 = 600,000	- 서울 국제 크로스컨트리대회 = 250,000

- 서울 국제 크로스컨트리대회 = 250,000	- 김운용컵 국제태권도대회 = 50,000
- 김운용컵 국제태권도대회 = 50,000	-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 120,000
-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 120,000	- 세계에어로빅대회 = 200,000
- 세계에어로빅대회 = 200,000	
- 서울오픈태권도대회 = 250,000	
- 서울세계 3쿠션 챌린지 월드마스터 대회 = 250,000	
- 서울평화국제유도대회 = 200,000	
- 서울7인제 국제력비대회 = 230,000	
○ 국제체육행사 지원 = 871,800	○ 국제체육행사 지원 = 1,399,250
- 서울-북경 교류 = 46,800	- 서울-북경 교류 = 103,900
- 서울-모스크바 교류 = 85,000	- 서울-모스크바 교류 = 82,850
- 동경 U-14 축구친선교류 = 20,000	- 동경 U-14 축구친선교류 = 20,000
- 동경아시아주니어 교류 = 10,000	- 동경아시아주니어 교류 = 10,000
- 세계태권도포럼 = 100,000	- 세계태권도포럼 = 100,000
- 국제 유스스포츠대회 = 230,000	- 국제 유스스포츠대회 = 230,000
- 회원종목단체 국제교류 = 100,000	- 회원종목단체 국제교류 = 100,000
- 2019 ICG 국제대회 참가 = 70,000	- ICG 국제대회 참가 = 70,000
- 국제행사 운영비 = 70,000	- 국제행사 운영비 = 162,500
- 방글라데시 초청 크리켓 대회 = 60,000	- 자카르타 자매도시 청소년 배드민턴 대회 = 20,000
- 제3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 = 80,000	- 2032올림픽 시민추진위원회 운영 = 500,000

국제체육행사 지원사업은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며 일부 사업에서 회계상 부적정한 부분들이 문제된 바, 정산절차를 강화하고 지원 대회 선정에 공통적인 조건, 규칙 등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경기지원 사업이 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야 함.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7억원)는 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 체육회로 교부하여 다시 서울시회원종목단체에게 교부되는 사업으로 59개 종목 약 4만3천명의 동호인이 참여하는 시장기대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임. 동 사업의 경우도 끊임없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으로 회수조치 되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체육회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조금 정산 결과 부정당 종목단체 등은 지원을 중단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들은 '19년 제100회 하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수행한 공이 크나, 「서울특별시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9.4~'20.4)에서 회원종목단체 내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 소홀로 질타를 받기도 하였음.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조항이 신설('19.1.15.)되어 '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 체육회는 제15차 이사회('19.10.14) 및 임시대의원총회('19.10.23.)에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과 「정관」 개정(회장선출 방식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대한체육회의 승인('19.10.29)을 받았음. 이후 제18차·제19차 이사회에서 ('19.1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동의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현재 '20년 1월 15일(수) 선거를 앞두고 있음.

지금까지 체육회 운영 재원을 지방보조금 형태로 의존하고 있었으나 자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 구상 및 기부금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별 설명서 230쪽)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홍보협력 사업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지부로 설립되어 운영 중임.

주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휠체어 농구, 장애인 탁구, 휠체어컬링, 골볼, 육상) 위탁운영을 통해 장애인 전문체육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0%인 11억 2천3백만원이 증가한 118억 1천6백만이 편성됨.

<2020년도 예산(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9 본예산	2020(안)	증 감	증감률(%)	비고
총 계	10,568,788	11,816,600	1,123,453	10	
민간경상사업보조	7,344,296	7,808,000	485,160	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674,492	1,903,600	83,293	4	
민간위탁금	1,550,000	2,105,000	555,000	35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2020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과목	구분	2020년 (A)	2019년 (B)	증감 (A-B)	증감율	주요증감내역
합 계		(×1,591,500) 11,816,600	(×1,318,920) 10,693,147	(×272,580) 785,117	1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소계		1,903,600	1,820,307	83,293	4%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인건비	1,363,600	1,259,871	103,729	8%	•급여상승분 등
	기본경비	540,000	560,436	△20,436	△4%	•예산절감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계		(×1,591,500) 7,808,000	(×1,318,920) 7,322,840	(×272,580) 485,160	7%	
전문체육사업		2,841,200	2,950,000	△108,800	4%	
전국장애편인체육대회 참가(동하계)		1,490,000	1,440,000	50,000	3%	•전국장애편인체육대회 참가비 증액
전국장애편인체육대회 참가		200,000	170,000	30,000	2%	•서울 개최에 따른 참가비지원금 증액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340,000	600,000	△260,000	△4%	•전국대회 지원비 축소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100,000	100,000	-	0%	•사업 종료
노후장비 교체지원		80,000	80,000	-	0%	•동결
가맹단체 육성 지원		391,200	300,000	91,200	30%	•종목별 행정운영비 증액 등
전임지도자 운영		220,000	190,000	30,000	16%	•기본급 증액 등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		20,000	20,000	-	0%	•동결
보치아 선수권대회(아시아&오세아니아)		0	50,000	△50,000		•사업 종료
생활체육사업		(×1,591,500) 4,431,800	(×1,318,920) 3,787,840	(×272,580) 643,960	17%	
서울시장애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170,000	170,000	-	0%	•동결
시장배 생활체육전국대회 개최		80,000	80,000	-	0%	•동결
어울림종합체육대회 개최		70,000	70,000	-	0%	•동결
지역동호인대회 개최		80,000	80,000	-	0%	•동결
장애인수영한강건너기대회 개최		50,000	50,000	-		•동결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등 운영		180,000	240,000	△60,000	△25%	동하계 캠프 분리
장애인 동하계 캠프 운영		60,000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등 운영 분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1,591,500) 3,233,000	(×1,318,920) 2,637,840	(×272,580) 480,628	18%	•지도자 인원증원(100→120)에 따른 운영비 증액
발달장애인선수 보조코치 운영		140,000	140,000	-	0%	•동결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육성		328,800	250,000	78,800	32%	•미설립 자치구 지원확대 등
장애인스포츠 안전보험		40,000	40,000	-	0%	•동결
지체장애인 파크골프대회		0	50,000	△50,000		•사업종료
홍보협력사업		535,000	585,000	△50,000	△9%	
장애인체육 홍보사업		40,000	45,000	△5,000	△11%	•스포츠기자단 운영 분리
장애인식 개선사업		45,000	45,000	-	0%	•동결
장애인스포츠기자단 운영		5,000	0	-		장애인체육 홍보사업 분리
장애인체육 봉사단 운영		5,000	5,000	-	0%	•동결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개최		290,000	290,000	-	0%	•동결
장애인파 비장애인인 함께하는 마라톤대회 개최		80,000	80,000	-	0%	•동결
서울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개최		50,000	100,000	△50,000	△50%	•예산절감
장애인 국제스포츠교류		20,000	20,000	-	0%	•동결
민간위탁금 소계		2,105,000	1,550,000	555,000	35%	
민간 위탁금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105,000	1,550,000	555,000	35%	•신규팀 창단에 따른 증액

마. 서울시설공단 3개 위탁운영시설 예산안

□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사업별 설명서 193쪽)

-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은 전년대비 4%인 6억 2천3백만원이 증액된 143억 2천3백만원이 편성됨.

<월드컵 경기장 최근 4년간 예산 변동 추이>

(단위:천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10,394,306	10,329,289	15,262,564	13,699,327	14,323,189

'18년도의 경우 '01년에 구매 한 전광판, 승강기, 조경(잔디)관리 용 차량운반구의 잦은 고장 및 주요 부품 단종으로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어 전광판 교체 26억 6천만원, 승강기 교체 6억 8천9백만원, 차량운반구 구매 1억 3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증액되었으며 시설노후화로 관련 예산이 소폭으로 증액되는 추세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증감사유>

(단위:천원)

과목구분	2019 본예산	2020년(안)	증감	증감사유
총 계	13,699,327	14,323,189	623,862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024,427	12,226,257	1,201,830	○ 인건비성 경비(243,770천원 증) : 인건비 인상율(2.8%) 및 평가급 지급율 인상(200%→250%)에 따른 증액 ○ 운영비(817,424천원 증) : 하이브리드잔디 교체설치 등 ○ 간접관리비(140,636천원 증) : 시세입 증가에 따른 전년대비 확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674,900	2,096,932	△577,968	○ 관중석 및 지붕막 교체 완료로 감액, ESS 배터리 증설 및 이전 설치 증액

주요 증감이유로 급여인상분 등이 반영된 인건비가 2억 4천4백만원 증액, 하이브리드잔디 교체설치 등을 위해 운영비 8억 1천7백만원, 서울시시설공단의 본부 운영비 부담액인 간접관리비가 사업비, 투입인원, 시세입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되어 1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고척스카이돔 운영(사업별 설명서 199쪽)

- 고척스카이돔의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4%인 4억 1천6백만원이 증가한 93억 4천3백만원이 편성됨.

고척돔구장은 '15년 준공되어 '16년 고척스카이돔 관리 운영을 서울시시설공단에서 대행하기로 협약('16.12.26, '17.12.21)을 맺고 '20년까지는 동 체제로 운영될 예정임. 서울 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과 달리 신설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영비(수선유지교체비 등)가 증액되고 있음.

<예산(안) 요구내역 및 증감사유>

(단위:천원)

과목구분	2019 본예산	2020년(안)	증감	증감사유
총 계	8,927,545	9,343,189	415,644	
사무관리비	35,000	35,00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834,545	9,263,189	428,6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직 일반직 통합 및 기본급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평가급 지급율 250% 반영, 인건비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357,628천원 증)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및 교환설비 유지보수 신규반영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공공요금 증액, 소송 승소사례금 등 운영 및 시설관리비용 증가(46,980천원 증) ○간접관리비(24,036천원 증) : 시세입 증가에 따른 전년대비 확대 편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8,000	45,000	△1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라운드 관리, 청소관리, 사무실, 부속시설 등 비품교체 비용 감소(13,000천원 감액)

□ 장충체육관 운영 (사업별 설명서 204쪽)

- 장충체육관 운영은 전년대비 1억 4천3백만원(6%)이 증가한 22억 9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예산(안) 요구내역 및 증감사유>

(단위:천원)

과목구분	2019 본예산	2020년(안)	증감	증감사유
총 계	2,154,504	2,298,075	143,571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126,504	2,287,075	160,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성 경비(95,434천원 증) : 공무원 일반직 전환 등 인건비 상승 반영 ○ 운영비(40,866천원 증) : 대관활성화에 따른 동력비 상승, 공기질 개선 관련 예산 반영 등 ○ 간접관리비(24,271천원 증) : 시세입 증가에 따른 전년대비 확대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28,000	11,000	△17,000	○ 주체육관 냉방장치 설치 완료에 따른 감액

-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은 근본적으로 자율·책임 관리운영의 기반이 취약하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활용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음. 시설공단이 관리운영(대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지는 수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시설공단은 수익증대를 위해 체육시설을 다수의 공연들을 유치하여 체육시설로써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서울시는 잠실운동장, 잠실체육관 등 전문 체육시설 대부분(월드컵경기장 예외) 경영수지 적자 문제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문체육시설 대부분이 준공된 지 30여년이 지난 시설로써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개보수 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적자 문제와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향후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관리의 전문성이 있는 주체로 각 시설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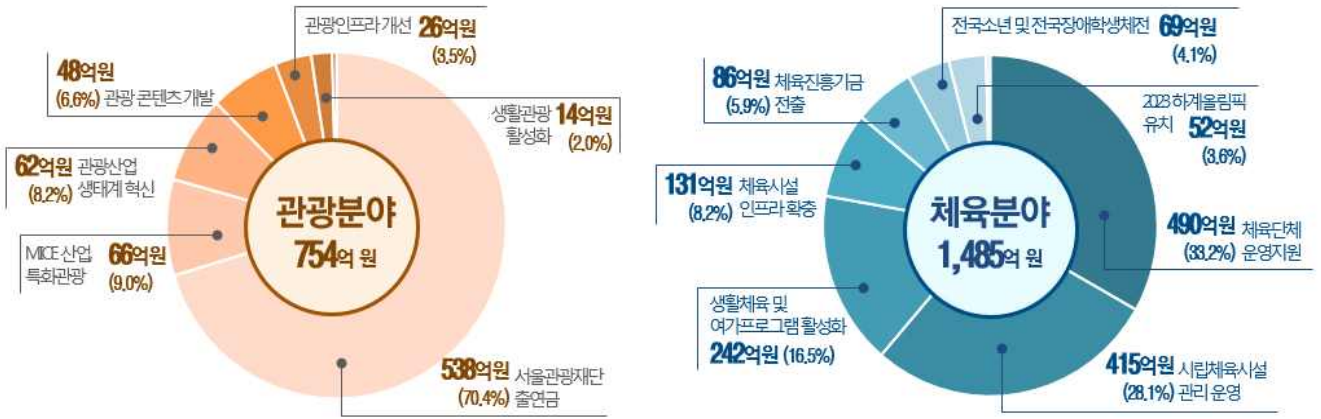
바. 2019년 관광체육국 명시이월 사업현황

○ 일반회계(1건, 2,00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합계		2,000,000	2,000,000	
1	산악문화 체험 센터 건립	계	설계용역 및 공사비	2,000,000	2,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19. 6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공사 부족액 20억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나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에서 추진하던 외장 공사가 지연되어 사용승인이 당초 8월에서 11월로 지연 처리됨 ◦ 따라서 후속 조치인 기부채납 등 사전절차 (설계용역 타당성 심사, 설계용역, 공사 일상 감사, 공사 계약심사 등) 이행도 지연되고 있음 ◦ 이에 내장공사가 연내에 시행되기 어려워 이월이 필요함
		시설비		2,000,000	2,000,000	

사. 총괄 검토의견



- 2020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892억, 특별회계 32억원으로 총 924억원이 편성됨. 일반회계는 전년도 세입예산 1,152억 8천8백만원 대비 26억 4천5백만원 감소한 892억 4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안의 두드러지는 증감요인은 전국체전 개최 종료로 시설 대관이 재개됨에 따라 사용료를 증액 편성하였고, 일부 체육시설 수익시설 유찰, 낙찰가 감소, 임대업체 감소로 수입을 감액 편성한 것에 따름.

- 2020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50억원으로 관광분야 751억원, 체육분야 1399억원이며, 전년대비 18.7% 감액 편성됨.

주요 증액사유는 '19년 대비 177억 증액되었으며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65억원,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88억원, '잘생겼다 서울' 여행자 터미널 구축·운영 사업 16억 등이 신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임.

- **관광예산**은 서울관광재단의 출범으로 기존의 대행사업, 보조금사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이관하고 「서울관광중기 발전계획」(2019~2023)을 발표하며 전체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방향을 재설정함.

재단은 고유사업('20년도 431억 5천9백만원 규모)과 대행사업('20년도 139억 6천8백만원 규모)을 수행하는 바, 이는 관광분야 전체 예산의 약78%를 차지하므로 시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의 사업 발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관광은 홍보마케팅을 위한 유사한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 바, 각 사업별 목표 타킷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업간 중복범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심층적인 전략으로 운영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체육예산**은 체육단체 운영 지원,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및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2020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 지원,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준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로 교부되는 보조금·위탁금을 통한 체육행사 지원사업은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며 일부 사업에서 회계상 부적정한 부분들이 문제된 바, 정산절차를 강화하고 지원 대회 선정에 공통적인 조건, 규칙 등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경기지원 사업이 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야 함.

특히 시체육회는 첫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어 시 보조금의 의존을 벗어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 구상 및 기부금 모금 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은 근본적으로 예산 활용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고 잠실운동장, 잠실체육관 등 전문 체육시설도 시설 노후화로 관리 감독의 고도화가 필요한 바, 체육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관리의 전문성이 있는 주체로 각 시설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39회 장애인체전의 개최를 위해 약 1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20년 전국 소년체전을 위해 또 다시 6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 관련 예산이 재정부담만 가중시킨 무의미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대회 개최 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관광체육국은 '20년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32년 하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준비 등 굵직한 현안 과제들이 있으며 막대한 예산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채, 기금 조성을 통한 해결만 내세우고 있는 바, 민선 7기 이후 서울시 중장기 계획의 변화가 올 경우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예상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임.

관광체육국의 관광예산은 서울관광재단으로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고, 체육진흥 예산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로, 체육시설 예산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시설공단으로 교부되고 있어

관광체육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보조금, 위탁금 등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과 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유사한 사업예산이 이중, 과다계상 되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바임.

II.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 개요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00년 11월 30일 설치되어 '01년부터 '09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적립하여 '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는 124억 9천9백만원으로 2019년 146억 6천5백만원에서 21억 6천6백만원 감소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6억 1천2백만원과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액) 26억 2천1백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6천 6백만원이 수입금이며 지출금으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및 야구발전사업 등 21개 사업에 113억 8천3백만원, 기본경비 1천만원, 여유자금 예치에 11억 6백만원 등 총 124억 9천9백만원을 편성함.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C)	증감 (C-B)	증감률 [(C-B)/B]
	당초(A)	최종(B)	증감(B-A)			
합 계	13,854,031	14,665,209	811,178	12,498,745	△2,166,464	△14.8%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8,134,608	8,956,108	821,500	8,211,158	△744,950	△8.3%
전문체육 육성	3,367,700	4,069,200	701,500	2,929,400	△1,139,800	△28.0%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500,000	-	500,000	-	-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20,000	420,000	-	420,000	-	-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32,700	332,700	-	342,700	10,000	3.0%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80,000	160,000	80,000	200,000	40,000	25.0%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820,000	820,000	-	740,000	△80,000	△9.8%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10,000	10,000	-	50,000	40,000	400.0%
	자치구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150,000	150,000	-	161,700	11,700	7.8%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05,000	205,000	-	215,000	10,000	4.9%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000	100,000	-	100,000	-	-
	서울 승마스포츠 육성사업	200,000	200,000	-	200,000	-	-
	2032 남북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450,000	450,000	-	-	△450,000	△100.0%
	경평축구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지원	100,000	100,000	-	-	△100,000	△100.0%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용역	-	30,000	30,000	-	△30,000	△100.0%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붐업 사업	-	200,000	200,000	-	△200,000	△100.0%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	-	16,500	16,500	-	△16,500	△100.0%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기재부 타당성조사 용역	-	100,000	100,000	-	△100,000	△100.0%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식 불꽃행사 뚝섬 지구 현장 운영	-	220,000	220,000	-	△220,000	△100.0%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동행음식점 앞치마 제작지원	-	55,000	55,000	-	△55,000	△100.0%
	생활체육 육성	875,708	995,708	120,000	1,275,758	△280,050	28.1%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000	200,000	-	350,000	150,000	75.0%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000	200,000	-	200,000	-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250,000	250,000	-	125,000	△125,000	△50.0%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225,708	345,708	120,000	600,758	255,050	73.8%
	시민체육공간 확충	3,891,200	3,891,200	-	4,006,000	114,800	3.0%
	야구장 시설 개보수	3,600,000	3,600,000	-	3,300,000	△300,000	△8.3%
	고척스카이드 시설 개선	291,200	291,200	-	706,000	414,800	142.4%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2,849,033	3,078,565	229,532	3,171,615	93,050	3.0%
	생활체육 활성화	2,608,824	2,838,356	229,532	3,171,615	333,259	11.7%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사구 공동협력사업	198,000	198,000	-	198,000	-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990,824	1,990,824	-	2,373,615	382,791	19.2%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운영 (구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300,000	300,000	-	300,000	-	-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 지원	40,000	40,000	-	40,000	-	-
	서울컵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개최 지원	80,000	80,000	-	-	△80,000	△100.0%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 설치운영	-	189,532	189,532	260,000	70,468	37.2%
	50m 공공수영장 확대 타당성 조사 및 기본모델개발	-	40,000	40,000	-	△40,000	△100.0%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240,209	240,209	-	-	△240,209	△100.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240,209	240,209	-	-	△240,209	△100.0%
	기본경비	10,000	10,000	-	10,000	-	-
	여유자금 예치	2,860,390	2,620,536	△239,854	1,105,972	△1,514,564	△57.8%

2. 검토의견

-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재정의 사용규모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게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년의 경우 2032 남북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경평 축구 다큐멘터리 방송제작 지원,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용역,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범업 사업,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기재부 타당성조사 용역,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식 불꽃행사 뚝섬지구 현장 운영,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동행음식점 앞치마 제작지원, 50M 공공수영장 확대 타당성 조사 및 기본모델개발 사업 등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진행되었음.

이는 관광체육국내 예상치 못한 사업들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임의적, 편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으며,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폭 확대할 경우, 자칫 주머니돈으로 여기며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야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금운영 계획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잦은 변경을 지양하고 지방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